

2026 아랍에미리트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가. 정부 현황	07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8
3. 주요 이슈 Pick	11
가. AI와 디지털 산업에 집중, 정부 및 산업구조 전환	11
나. 산업 다변화와 비석유 부문 성장 강화	12
다. CEPA 확대와 UAE의 역외가공·무역 중심지 도약	13
라. 첨단 국방 자립, 중재 외교로 이어가는 UAE	14
마. 안정적 소비시장과 문화·관광 육성 전략의 선순환	1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가. 시장 특징	18
나. 무역	20
다. 산업	29
라. 투자	30
2. 유망 산업	36
가. AI	36
나. 에너지	41
다. 제조업	43
라. 방산	46
마. 관광	49
3. 협력 기회	52
가. 통상·G2G	52
나. 프로젝트	54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8
2. 진출전략	60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79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84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8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9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7 |
| 3. 주요 이슈 Pick | 1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만 명	950.3	928.2	978.9	1,024.2	1,064.2	1,102.7	1,138.9	n/a
명목 GDP	십억 달러	418.0	349.5	415.2	502.7	514.1	537.1	548.6	577.42
1인당 명목 GDP	달러	43,982	37,649	42,103	48,861	48,146	48,830	49,498	51,720
실질 성장률	%	1.1	-5.0	4.4	7.5	3.6	3.8	4.0	5.0
실업률	%	2.3	4.3	3.1	2.9	2.2	2.1	n/a	n/a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	-2.1	-0.1	4.8	1.6	1.7	2.1	2.0
재정수지(GDP 대비)	%	2.6	-2.5	4.0	10.0	5.9	4.8	2.9	2.9
총 수출(상품·서비스)	십억 달러	404.9	350.3	425.1	521.9	558.8	598.8	628.0	657.7
(對韓 수출)	백만 달러	8,991	5,693	7,319	15,493	16,423	17,931	11,695 (~9월)	n/a
총 수입(상품·서비스)	십억 달러	321.5	273.7	320.4	394.9	444.2	484.1	518.0	542.8
(對韓 수입)	백만 달러	3,470	3,654	3,975	3,967	4,432	5,067	3,939 (~9월)	n/a
무역수지(상품·서비스)	십억 달러	83.4	76.6	104.7	127.0	116.6	117.1	110.0	114.9
경상수지	십억 달러	37.0	21.0	48.0	66.5	54.8	49.0	36.3	36.8
환율(연평균)	1USD	3.672	3.672	3.672	3.672	3.672	3.672	3.672	3.672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21,226	18,937	22,546	24,833	22,320	23,400	n/a	n/a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17,875	19,884	20,667	22,737	30,688	45,600	n/a	n/a

자료: IMF('25년 4월), UN, UAE 통계청, UNCTAD, World Bank, 한국무역협회(KITA)

□ (경제 전망) '26년 UAE 경제성장을 5.0% 전망, 전년 대비 1.0%p 상승

- (호재 요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 수요 반등 및 OPEC+ 감산 완화 효과, 비석유 부문의 견조한 성장 및 경제 다각화 심화
 - OPEC+ '24년 말부터 자발적 감산 철회 시작, '26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UAE의 산유량 증가가 실질 GDP 개선을 견인

* '26년 OPEC+ 할당량에 따른 석유 부문 성장률이 8.5%로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 '25년 4.7% → '26년 5.7%로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발표(CBUAE, '25년 8월)

- IMF는 제조업, 금융 서비스, 건설, 부동산 등 비석유 부문이 UAE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평가
 - * '25년 1분기 기준 비석유 부문이 UAE GDP의 77.1% 차지(CBUAE, '25년 9월)
- (부진 요인) 글로벌 통상 마찰 심화 및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유가·공급망 충격 가능성
 - IMF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통상 규범 약화가 중동 및 신흥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 UAE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가스 수출의 대다수를 운송하고 있어,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무역·에너지 수익·물가 안정성 전반에 중대한 영향 가능성
 - * UAE-이란 사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EIA, '25년 6월 16일),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약 25~27% 차지(IEA, '25년 6월 17일; CRS, '25년 8월 4일)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IMF, '26년 UAE GDP 성장을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성장 예측
 - '25년에는 국제유가가 상대적 고점 유지 및 OPEC+의 점진적 감산 완화가 이어지면서 석유 부문 성장세가 뒷받침될 전망
 - 두바이·아부다비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추진, 연간 관광객 2,500만 명 돌파 예상,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따른 물류 활성화, 역외 자금 유입 확대에 힘입은 금융업 발전 등 비석유 부문의 주요 산업 전반에서 성장 가속화 중
 - '26년 석유 생산 정상화와 함께 '비석유 GDP 5조 디르함 달성을 전략('31년)'에 기반한 경제 다각화 성과가 본격화될 전망

UAE 연도별 GDP 성장률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f	2026년f
GDP 성장률(%)	7.5	3.6	3.8	4.0	5.0

자료: IMF('25년 4월)

- (소비) IMF는 '26년 UAE 물가상승률을 2.0%로 전망
 - IMF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조정과 UAE 내수 확대를 반영하여 2.0% 상승 전망, CBUAE는 달려 강세 및 국내 공급 안정성을 반영하여 1.9%로 제시

UAE 연도별 물가상승률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f	2026년f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	1.6	1.7	2.1	2.0

자료: IMF('25년 4월)

- (산업 생산) '25년 7월 UAE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9로, 경기 확장 국면(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 둔화가 확장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아부다비통계청(ADDED)에 따르면, '25년 1분기 아부다비 제조업 부가가치는 약 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여 아부다비 전체 GDP의 9.8%를 차지. 이는 비석유 경제 성장세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금속·화학·건축자재 분야에서 생산 확대
 - * 신규 산업 라이선스 발급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기존 공장의 생산 가동 전환율은 65% 증가에 달해 산업 생산 잠재력 확대 추세(ADDED, '25년 5월)
 - '26년 제조업은 현지화 조달 확대 정책에 힘입어 생산 가동률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한층 다변화될 가능성이 큼.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방산·항공부품,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현지생산 확대가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전망
- (대외교역) '25년 상반기 비석유 대외교역 4,703억 달러 초과, 비석유 수출 1,006억 달러(+44.7%), 비석유 교역 내 수출 비중 21.4% 증가
 - 아부다비 비석유 교역은 같은 기간 532억 달러(+34.7%), 특히 비석유 수출은 213억 달러 (+64%)로 크게 증가. 이는 아부다비의 산업 다각화 전략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정책이 교역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
 - * '25년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약 7.5%로 전망하며 교역 흑자 기조의 지속 시사(IMF, '25년 1월)
 - 두바이는 'D33 경제 아젠다'를 통해 비석유 대외교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통관 절차 간소화, 디지털 단일 창구 고도화 등 무역 인프라 혁신을 병행 추진 중
- (투자 유입) UAE는 '23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를 설립
 -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투자부는 ▲ 투자 절차 간소화 ▲ 인센티브 제공 ▲ 규제 환경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투자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
- (투자 진출) UAE는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상반기에 그린필드 프로젝트와 전략적 M&A, JV 등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글로벌 FDI 평균치를 웃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
 - UAE의 대외투자는 ADIA·Mubadala·ADQ·ICD 등 주요 국부펀드의 공격적 운용 전략이 견인하고 있으며, '25~'26년 ▲ 재생에너지 ▲ AI·디지털 ▲ 의료·바이오 ▲ 인프라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투자 규모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왕실 중심의 안정적 리더십과 국가 비전으로 대국민 신뢰 확보

- '22년 5월 대통령직 승계한 UAE 3대 대통령 세이크 모하메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과 왕실 중심의 안정적 리더십 순항 중
- 장기 비전과 정책 성과 통해 대국민 지지 확보 및 자국민 대상 복지제도 완비로 국내 세력 간 갈등 가능성 매우 낮음
- 아부다비 왕이 대통령으로 임명, 두바이 왕은 부통령·총리직 겸임 체제, 토후국별 차기 왕위 계승 서열화로 내전·권력 분쟁 가능성 사실상 없음
* (아부다비) '23년 3월 UAE 대통령의 장남 세이크 칼레드가 왕세자로 책봉, (두바이) '08년 책봉된 세이크 함단은 고령의 두바이 왕(세이크 모하메드, 1949년생)과 함께 활발한 대외 활동 중

□ 균형·실리 외교 기조 및 글로벌 중재자 위상 강화 노력

- (균형 외교) '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미국·유럽과 긴밀한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인도 등과도 에너지·무역 등 전략적 협력 확대
- (실리 추구) 정치·이념적 입장보다는 경제·투자·기술협력 등 실질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외교 정책을 추진
- (중재자 역할)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자·아프리카 등 주요 분쟁에서 중재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재자로서의 위상 제고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중 UAE 역할 강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대통령 2기 임기 후 첫 순방지로 중동 3국을 선택, '08년 이후 17년 만에 UAE를 방문('25년 5월 14~15일), 경제 협력과 안보 현안 관련 UAE의 중추적 역할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반도체,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 - 이란, 후티 반군 등 역내 위협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 평화·안정 협력 공조 추진 및 UAE 역할 강조 |  |
|---|--|

자료: CNN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역내 제조업 역량 및 현지화 제도 강화

- (제조업 육성) 3,000억 디르함 산업 전략(Operation 300bn) 통한 산업 혁신 추진, ‘메이크 잇 인 더 에미레이츠(Make it in the Emirates)’ 캠페인 병행하며 UAE를 글로벌 제조·산업 중심지로 성장 시키기 위한 비전 제시
 - (Operation 300bn) ’31년까지 UAE의 산업* 부문 GDP 기여도 AED 3,000억 디르함(약 817억 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한 여정 계속(’21년 1,330억 디르함(약 362억 달러))
- * 10개 주요 산업군(화학, 금속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생명과학 외)과 11개의 이니셔티브(첨단 제조 기술 발전, R&D 혁신 장려, 국내 생산 촉진, 스마트 제조 도입 등) 포함
- (Make it in the Emirates) 역내 생산 품질 인증 제도(Made in the Emirates Mark) 도입으로 자국 제조업 활성화 통한 경제적 자립과 경쟁력 강화 목표
- (현지화 제도)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자국민 고용 확대, 현지 제품·서비스 활용, 현지 투자 비중 제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심 역량의 산업 경쟁력 추진
 - (In-Country Value) 현지 조달 및 자국민 고용 비중을 반영한 ICV 점수를 공공 조달 평가 표준으로 도입. ’31년까지 정부 조달 지출의 50%를 자국 내 구매로 전환 계획

□ CEPA 및 경제 블록(BRICS, EAEU) 활용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대

- (CEPA) 인도와 첫 CEPA 협정 체결 후, ’25년 10월 1일 기준, 13개국과 협정 발효

협정 발효 국가(13개국)		협정 체결 국가(12개국)
국가	일자	
인도	’22년 5월 1일	대한민국(’24년 5월)
이스라엘	’23년 4월 1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23년 9월 1일	칠레
튀르키예	’23년 9월 1일	베트남
캄보디아	’24년 1월 31일	케냐
조지아	’24년 6월 27일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25년 4월 1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25년 4월 1일	콩고공화국
요르단	’25년 5월 15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세르비아	’25년 6월 1일	벨라루스
뉴질랜드	’25년 8월 28일	아제르바이잔
호주	’25년 10월 1일	양골라
말레이시아	’25년 10월 1일	-

〈UAE-CEPA 체결국 현황('25년 10월 1일자) 및 한-UAE 서명식〉



자료: UAE 외교부

- (BRICS) BRICS 회원국 참여로 신흥시장 지정학적·경제적 레버리지 확보
 - '24년 1월부로 회원국 자격 공식 획득, 대형 신흥국과의 무역, 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적 연대 강화 및 에너지 시장 영향력 확대 도모
 -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또한 회원국으로 승인, 브릭스+ 회원들과의 파트너십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
- (EAEU)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CEPA 및 회원국과의 TISIA(서비스·투자협정) 체결 통해 무역과 투자 흐름 확대 및 경제 다변화 전략을 지원
 -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CEPA) UAE-EAEU CEPA 체결('25년 7월)로 UAE 기업들이 1억 8,000만 명 이상 인구로 구성된 EAEU 시장에서의 활동 확대 기회 마련
 - (TISIA) 벨라루스('25년 6월), 러시아('25년 8월)와의 협정 체결에 이어 연내 나머지 3개국과의 서명 완료 기대. EAEU 회원국과의 포괄적 경제 참여 강화 및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규제 완화 추진 계획

□ 자국민 고용 의무 강화 : 반기별 목표 도입 및 의무 적용 범위 확대

- (에미라티제이션) UAE 인적자원부(MOHRE)는 '22년 5월,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민간 부문 기업 대상 자국민 고용 의무화 정책* 시행 발표
 - * Ministerial Resolution No.(279) of 2022
 - (요약) 5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은 '22~'26년, 매년 총원의 2%에 해당하는 자국민을 신규 채용, 5년 후인 '26년 자국민 비율 10% 달성 필수
 - (강화된 타임라인) '23년 4월, 기존 배정된 연도별 목표와 더불어 반기별 목표 도입 계획을 발표, '23년 상반기 시행에 나섬
- (의무 적용 범위 확대) '23년 7월, 신규 장관령* 통해 '24년부터 2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
 - * Ministerial Resolution No.(455) of 2023
 - 14개 경제활동(Economic activities)* 분야 종사, 근로자 수가 20~49명 민간 부문 기업의 경우, '24년 최소 1명, '25년 최소 2명의 자국민 채용 필수
 - *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외

□ 연방 법인세 최초 납부 진행 및 국내 최저한세(DMTT) 도입

- (개요) '23년 6월 1일부 UAE 연방 법인세법 공식 발효, 6월 1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25년 9월, 다수 기업이 최초로 과세 연도 종료 후 최초 납부 예정
 - * '24년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채택 사업자의 최초 과세 기간은 '24년 1월 1일~12월 31일, 최초 신고와 납부는 '25년 9월(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 대부분의 우리 진출 기업 해당
- (대상) UAE 내의 법인과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 일부 정부기관, 비영리 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
 - * 연간 수익 100만 디르함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사업자 등록 면제
- (세율) 과세소득 37만 5,000디르함(약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0%, 이상인 경우 9%
- (국내 최저한세 도입) '24년 12월 발표된 내각 결정*에 따라 OECD Pillar 2에 근거하는 국내 최저한세 '25년 1월 이후 최초 회계연도부터 적용
 - * Cabinet Decision No 142 of 2024
- (대상 및 세율) 글로벌 세원 침식 방지(GloBE) 모델에 기반하여 매출이 EUR 7억 5,000만* 이상 다국적 기업(MNE)에 적용, 15%의 최소 유효세율을 보장
 - * 지난 4개 회계연도 중 2년 이상 7억 5,000만 유로 이상, UAE 본사 기업 중 해외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

3. 주요 이슈 Pick

가. AI와 디지털 산업에 집중, 정부 및 산업구조 전환

□ '26년 UAE 국가정책의 핵심 의제, AI·디지털 산업

- UAE, AI만으로 '30년 UAE GDP의 13.6%를 창출할 수 있다고 예측
 - '25년 기준 UAE의 AI·디지털 산업은 비석유 GDP의 약 12%를 차지하며, '31년까지 20%로 확대될 전망
 - * 아부다비 정부는 '25~'27년 AI·디지털화 전략에 약 35억 달러 투자를 발표
 - 고유가로 확보한 재정 여력과 원전·태양광 기반의 저비용 전력은 UAE의 AI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 데이터·인프라·정책이 만든 UAE AI 성장 삼각 축
 - (데이터 활용·서비스 기회 확대) 병원, 금융기관, 항공사, 공공기관 등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
 -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 공항·항만·교통 등 핵심 인프라에 AI 적용, 처리 능력 확대와 운영비 절감
 - (정부 정책 지원과 시장 확대) UAE 정부가 자율주행, 디지털 화폐, 스마트 전력망, 도시 안전 관리 등 분야에 AI 적극 도입

〈UAE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31〉

- '31년까지 AI가 UAE 비석유 GDP의 20%를 차지하도록 확대 목표
- 의료, 교육, 교통, 정부 서비스, 환경 등 공공 분야에 AI 적용 확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AI 가이드라인 등 AI 관련 규제적 프레임워크 마련



자료: u.ae

□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검증 기회와 글로벌 ICT 경쟁 심화

- 스마트시티(도시 운영·에너지 효율·교통 ITS), 의료(EMR·AI·원격의료), 제조 ICT(IoT·에너지 관리) 등은 UAE의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와 연계되며, 단순 시범사업을 넘어 확장·상용화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 두바이 정부는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기술 기업에 약 8~9주간의 시범운영 기회를 부여하며, 기업은 공공기관과 공동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단기간 내 시제품을 검증하고 상용화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글로벌 ICT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UAE 국부펀드·현지 테크 그룹 간 연계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구축. 정부 주도 프로그램에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하며 기술 도입과 조달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나. 산업 다변화와 비석유 부문 성장 강화

□ 정부 주도의 신성장 부문 육성과 경제구조 전환

- 비석유 부문 성장동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 '25년 1분기 비석유 부문 GDP가 5.3% 증가하며 전체 성장세를 주도하였고, GDP 내 비석유 부문 비중은 77.3%로 최고치 기록. 이는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경제 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시사
 - '25년 상반기 비석유 무역 규모는 4,7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같은 기간 세계 평균 무역 성장률이 약 1.8%에 그친 것과 대비되며, UAE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교역 다변화·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제 무역의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방증함
- 국가전략을 주도로 한 첨단산업 드라이브
 - 연방 차원의 3,000억 디르함 산업 전략(Operation 300bn)이 산업 전환의 큰 방향(첨단제조·고부가가치, 산업디지털화)을 제시하고, 아부다비의 Industrial Strategy, 두바이의 Dubai Economic Agenda D33가 인프라·클러스터·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함
 - UAE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은 기술·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제조업을 디지털·데이터·서비스가 융합된 체제로 전환하여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를 구축함

□ 현지 생산 기반 확대와 산업생태계 고도화

- 세계적 수준의 항만·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단순 재수출 중심이 아닌 현지 조립·가공·부품 공급 중심의 경공업 제조 및 산업 기반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음
 - 단순한 물류 허브를 넘어 산업 거점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기술 이전 촉진, 현지 조달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UAE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기반을 형성
- 제품 인증(ECAS, 할랄 등), 데이터·사이버보안 및 클라우드 규제, 건설·소방 인증 등 다층적 규제가 시장진입 단계에서 시간·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UAE 정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체계로 전환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기반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현지 조달 확대에 기여할 전망
- ICV* 충족과 에미리티제이션(자국민 고용의무) 요건 강화로 인해 수출 중심 모델보다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 기술 이전 패키지, 조립공장 및 서비스센터 설립 등 현지화 중심의 산업 진출전략이 필수화되고 있음

* 제품·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UAE에서 창출되었는지 측정하는 지표

다. CEPA 확대와 UAE의 역외가공·무역 중심지 도약

□ 다종적 통상 네트워크 심화와 산업별 해외 진출 교두보 확대

- CEPA 발효국 확대가 견인하는 무역 허브화
 - '25년 10월 기준, 25개국과 협정 체결 및 13개국과 협정 발효 완료
 - CEPA 발효 이후 관세 인하·철폐와 통관 절차 간소화가 추진되며, 가격경쟁력 제고 및 교역 품목 다변화가 진행되었고, 농식품·제조업·서비스 등 비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며 교역 기반이 강화됨
 - '25년 상반기 기준 CEPA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한 UAE의 비석유 수출은 전년 대비 62.8% 증가. 동기간 인도와의 비석유 교역은 3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9% 확대, 튀르키예와의 교역 규모는 400억 달러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
- 제조에서 디지털·물류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해외 진출 기반 강화
 - (제조) CEPA 발효는 정부의 장기구매계약, 금융지원제도와 결합하여 자동차부품·기계·석유화학 등 제조 품목의 수주 안정성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가능하게 함. UAE의 지속적 인프라 확충은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효율화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함
 - (서비스·디지털) 협정문 내 서비스 시장 개방 조항은 헬스케어(원격진료·AI 진단), 금융(디지털 디르함·핀테크), ICT(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조달 기회를 확대함
 - (물류·인프라) 원산지·통관 최적화를 통해 UAE가 재수출·경공정 조립·부품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 특히 GCC 및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재수출 경로가 넓어지고, 남아시아·아프리카 등 CEPA 발효국으로의 신속한 시장 접근이 가능해짐

□ CEPA 네트워크를 통한 UAE 거점 재수출 전략

- 한-UAE CEPA 발효 시 UAE를 교두보로 삼아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 시장에 재수출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가 확대됨. 관세 인하와 통관 간소화로 물류 효율성이 제고되며, 두바이·아부다비 항만 및 자유무역지대(Freezone)을 활용한 글로벌 허브 전략 한층 강화
- 현지 물류·유통 파트너십, 산업별 특화 클러스터 활용, 서비스 융합형 수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차별화된 재수출 전략 수립 필요

라. 첨단 국방 자립, 중재 외교로 이어가는 UAE

□ 국방 역량의 자립·국산화 최우선 기조

- 안보 위협 심화로 국방 예산 증액, 차세대 방위력 확보 및 국방 자립화 주력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장기화, 이란과의 갈등 위험 등 국가안보 환경 위협 확대에 따라 방위비 지출 확대 통한 전투 능력 강화 추진 중
 - 높은 에너지 가격은 방위비 확대의 재정적 여력 뒷받침, 이를 바탕으로 첨단 장비 수요 및 기술 분야 협력 통한 방산 자립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무인항공기(UAV), 해상 전력,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투 능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방산 제품과 서비스가 유망 산업 분야로 부상
 - 국영 방산기업 EDGE 그룹(25개 자회사, 5개 클러스터)을 중심으로 자국 방산 기반 개발을 가속화 중이나 여전히 첨단 장비·서비스는 수입에 의존. 이에 따라 생산 기반 강화 통한 수입 의존도 완화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부상
 - 경제 다각화 기조 아래 기술 이전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격상, 방산 기술 이전과 보상거래(Offsets)에 적극적인 비전통적 국제 파트너(미국, 프랑스, 영국 제외)에게도 시장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 국의 기반 실리 외교, 국제 중재 및 인도주의자 위상 강화

- 외교적 긴장 상태 청산 후 다방면 실리적 협력 가속화 및 군사적 자립 기반 토대 역내 분쟁국 간 국제 중재자로서 위상 강화 노력
 - 이스라엘과 '20년 9월 외교관계 수립, '22년 5월 CEPA 체결('23년 4월 발효)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중립적 입장으로 변경, 양측 중재 및 인도주의 지원(Birds of Goodness, 80여 차례 낙하산 투하를 통해 4,000톤 이상 구호물품 지원)* 지속
 - * 요르단 중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자 인도 지원 연대 확장
 - 걸프만 입구의 도서 영유권, 호르무즈 해협 물류 등의 이슈가 있었던 이란과 '16년 격하되었던 외교관계 정상화*하며 경제·외교적 협력 관계 개선
 - * '22년 9월 주이란 UAE 대사 및 '23년 4월 주UAE 이란 대사 임명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도 러시아 에너지·투자 중심 경제협력 확대,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기여 확대 계속, 직접적 대립 회피와 협력 통한 영향력 확대 추구.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교환(약 4,600명) 중재 등 중립 외교 수행 강조
- 중재·협상 허브로서의 UAE 위상 강화는 글로벌 포럼, 전시회, 국제 행사 개최 확대와 연결, MICE 산업 성장의 기회 요인
 - MICE 및 서비스 산업(컨벤션·전시 운영, 이벤트 솔루션) 진출 기회, 첨단기술 솔루션(사이버 보안, 스마트 컨퍼런스 시스템) 분야 진출 및 제3국 진출 협력
 - NGO, CSR 활동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십 구축 기회

마. 안정적 소비시장과 문화·관광 육성 전략의 선순환

□ 안정적 소비시장, 정주환경 개선 통한 구매력 제고

- UAE는 높은 가처분소득과 젊은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거주민 유입 확대를 위해 정주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인구) '25년 UAE 인구 약 1,100만 명으로 '09년 두바이 금융위기 당시 677만 명 대비 141.7% 증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 인구 성장세 유지
 - (구매력) 자국민,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중심 높은 구매력 형성.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 약 7만 8,000달러로 세계 16위*. 최근 세계 초고액 자산가 유입 가속화**
 - * 룩셈부르크(1위, 15만 772달러), 싱가포르(2위, 15만 689달러), 아일랜드(3위, 13만 1,175달러), 마카오(4위, 12만 8,268달러), 카타르(5위, 12만 6,110달러), 사우디아라비아(22위, 7만 1,243달러)(‘24년 IMF)
 - ** '24년 두바이 거주 백만장자 8만 1,200명, 센티밀리어네어 237명, 억만장자 20명, '24년 6,700명 '25년 9,800명의 백만장자 UAE 유입 전망
 - (구성) 약 200개국 출신 이민자가 거주하는 다국적 사회.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 88.5% 중동·서남아권 인력 주류, 최근 유럽·북미 인력 빠른 증가세
 - * 자국민(11.5%), 인도(38.0%), 파키스탄(16.7%), 방글라데시(7.4%), 필리핀(6.9%), 이란(4.7%), 이집트(4.2%), 네팔(3.2%), 중국(2.2%) 외 Global Media Insight '25년
 - (연령) 경제활동인구(15~64세) 비중이 82.2%로 매우 높은 편
- 기존 정부는 ▲ 장기 비자·영주권 제도 도입 ▲ 주 4.5일 근무제 시행 ▲ 주류 규제 완화 ▲ 동거 허용 등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여 고소득·전문직·청년층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유도한 바 있음

□ 문화·관광 신산업 육성 전략 : 인구 유입 → 소비시장 확대의 선순환

- 문화·관광 산업 육성 전략은 질적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시장 확대와 新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정부는 대대적인 문화 행사* 및 스포츠 행사**,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인재와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 적극 유치 중. 단순한 산업 다변화 차원을 넘어 장기적 인구 정착과 소비시장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으로 기능
 - * Abu Dhabi Art, Abu Dhabi International Book Fair, Dubai Opera, Dubai Food Festival
 - ** F1 Abu Dhabi Grand Prix, UFC Fight Night Abu Dhabi, Dubai World Cup(경마), Dubai Tennis Championships, DP World Tour Championship(골프)
 - *** RAK Wynn Resort(중동 최초 카지노 리조트, '27년 개장), Disneyland Abu Dhabi('33년 개장), Abu Dhabi Sphere('24년 10월 개발 계획 공식 발표)
 - 중동 Big 3(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간 역내 허브 경합의 일환

- 두바이의 게임 2033 프로그램*(’23년 11월), 아부다비는 e스포츠 아일랜드(’24년 3월)와 같은 e스포츠 육성 전략은 전통 관광 산업을 디지털 콘텐츠·체험 산업으로 확장하는 신산업 육성 흐름과 연계

* 두바이 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창작 플랫폼 구축 계획

〈e스포츠 아일랜드〉

- e스포츠 라운지 운영사 True Gamers는 아부다비에 세계 최초의 전용 e스포츠 아일랜드 건설 계획 발표. 완공 시 두바이·리야드와 경쟁 가능한 글로벌 e스포츠 허브로 자리매김 예상
- 투자액 약 10억 달러로 아부다비 알 라하 비치(AI Raha Beach) 인근, 디지털 타워(회의 공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 아레나 (e스포츠 토너먼트 경기장, PC 100대 규모 클럽 등), 부트캠프(선수 숙소), 리조트(200실 호텔) 건설 예정



자료: Coliseum

- 신산업 기반 정주 확산은 장기적으로 FMCG·내구재·서비스 수요 기반을 강화,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을 촉진
 - (소비재) 다문화·고소득 소비층·젊은 층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제품·서비스 수요 증가
 - (문화·콘텐츠·관광) 체험·레저형 관광 수요 증대로 인프라 산업, 스마트 관광 솔루션, 콘텐츠, 관광 상품(페스티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성장
- 한류 브랜드·IT·콘텐츠 경쟁력·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 FMCG ▲ 뷰티 ▲ 문화 콘텐츠 ▲ 스마트 관광 ▲ 헬스케어 등 다방면 진출 기회 확보 가능
 - 단, ▲ 역내 국가가 간 허브 경쟁 심화로 투자 과열 가능성 ▲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 심화 ▲ 현지화 전략 미흡 시 진입장벽 존재 ▲ 유가에 따라 관광·부동산 연계 소비가 위축될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2. 유망 산업	36
3. 협력 기회	52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다자협정 기반,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역외가공 및 물류 허브
- 원유 중심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으로 경제구조를 다변화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 구현을 목표로, 클라우드·AI·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극 도입
- 고소득 인구와 유입 관광객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가. 시장 특징

□ 비즈니스 혁신과 물류 허브로 진화 중인 UAE

- 무역 및 물류 허브 역할 강화
 - UAE는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재수출과 물류의 중심지
 - 두바이의 Jebel Ali 항구와 Al Maktoum 공항은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로 평가되며, 다수의 자유 무역지대(Freezone) 보유
- 비석유 중심 경제 다변화와 디지털 친화성
 - Vision 2031*, Digital Economy Strategy** 등의 정책을 통해 석유 의존도에서 벗어나 관광, 금융, 부동산, 첨단 제조 등 비석유 산업 육성에 집중
 - * 향후 10년간 UAE를 사회·경제 등 측면에서 글로벌 파트너 및 유력 경제 허브로 강화하는 국가전략
 - **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도를 '22년 약 9.7%에서 10년 내 약 19.4%로 두 배로 확대하고, UAE를 디지털 경제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
- 새로운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며, 정부 주도의 AI 정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디지털 인증 인프라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 제공

□ 높은 1인당 구매력으로 프리미엄과 경험에 집중하는 소비 트렌드

- 디지털 라이프와 경험에 기반한 소비 문화
 - 온라인 구매, 정기 배송 서비스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지향하며, 정부 통합 서비스 앱과 디지털 월렛 등 소비의 디지털화로 편의성 증진

- 소유를 넘어 SNS 등을 통해 브랜드와 상호작용하거나 경험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 **프리미엄과 웰니스에 집중하는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 문화**
 - '25년 1인당 명목 GDP는 약 5만 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로, 고소득 외국인과 국민층을 중심으로 높은 삶의 질을 지향하는 경향
 -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를 우선순위로 두는 경향이 뚜렷하며, 제품 구입 시 품질과 사회적 지위를 아우르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음

□ UAE 산업표준화 제도

- **산업첨단기술부(MOIAT) 주도 연방 인증제도 운영**
 - * '01년 ESMA는 출범 이후 토후국별로 상이한 수입 허가 제도 통합, '21년 MOIAT 산하로 합병
 - 규제품목의 UAE 내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ECAS, EQM 획득이 강제되며, 식품·소비재에서 산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신규 규제 공표 중
 - 현재 우리 기업 수출이 활발한 화장품과 가전 등도 규제 대상인 바 수출 전 품목의 인증 대상 여부 파악이 필요
 -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현지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므로 현지 직접 진출 혹은 디스트리뷰터 선임이 선행되어야 함

UAE MOIAT 관할 주요 인증

로고	인증명	품목	세부 내용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화장품, 향수, 플라스틱 제품, 세제, 식품접촉물질(주방기구), 조명기구, 어린이용품, 가전(냉장고, 세탁기 외), 전자담배, 엘리베이터, 윤활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지정한 규제품목의 제조·수출업체가 유통 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ECAS 인증서 제출 요구 가능 일부 품목은 RoHS 또는 IMS(산업측정시스템) 인증을 먼저 취득해야 ECAS 발급 가능
	Emirates Quality Mark	(의무 대상 품목) 생수, 주스 및 음료수,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단일 품목이 아닌 전체 제조 라인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부여 의무 대상 품목은 제조사설 실사 후 EQM 의무 획득 필수 취득 시 UAE 시장에서 품질 우수성을 입증 가능
	National Halal Mar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국가 할랄 제도에 따른 공식 인증 마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보충제 등 광범위 품목으로 의무화 예정

자료: MOIAT

□ 글로벌 확장의 전진기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서의 UAE

- 중동·아프리카·서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 UAE는 아프리카, 서남아,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물류 요충지로, 다수의 항만과 공항, 자유무역 지대를 활용하여 제3국 수출 및 재수출이 용이하며, CEPA 등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적극적으로 확대 중
- 고소득 시장 및 관광 수요 활용
 - 높은 1인당 GDP와 안정된 외화 수입 기반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소비재 수요가 높으며, '24년 1,800만 명 이상 유입된 관광객 수요도 고려 가능
- 디지털 중심 진출전략 구축 유리
 - UAE 정부는 AI·클라우드·디지털 인증 등 4차 산업 기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수용도가 높은 소비자층과 함께 핀테크, 이커머스, 헬스테크 등 한국 디지털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

나. 무역

□ UAE 교역 규모 확대 지속, '25년 1조 1,460억 달러 전망

- '25년 UAE 총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1조 1,460억 달러에 이를 전망. '23년 1조 달러에서 '24년 1조 810억 달러로 7.7% 증가한 바 있음
 - * 상품과 서비스 교역
 - '25년 기준 역외수출은 6,2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 역외수입은 5,180억 달러로 7.5% 늘어 수출보다 더 큰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되 '24년 1,170억 달러에서 '25년 1,100억 달러로 △ 6.1% 기록, 글로벌 교역 허브로 교역량 확대를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수입 의존 구조로 인해 무역수지 개선 여력은 다소 약화된 모습

UAE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559	7.1%	599	7.2%	628	4.9%
역외수입	444	12.5%	482	8.5%	518	7.5%
무역수지	115	△9.8%	117	2.2%	110	△6.1%
총 교역	1,003	9.4%	1,081	7.7%	1,146	6.1%

자료: IMF MCDREO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주요 수출국) '24년* UAE의 최대 수출국은 인도로 576억 달러 수출, 전체 비중의 14.0% 차지
 - * '25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2위는 일본으로 수출액은 348억 달러 전체 비중의 9.0% 차지, 3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341억 달러, 對한국 수출액은 169억 달러로 전체 5위를 차지

2024 UAE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명	수출액		점유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1	인도	42,278	57,562	11%	14%
2	일본	34,805	34,789	9%	9%
3	중국	37,033	34,145	10%	9%
4	홍콩	13,750	18,690	4%	5%
5	대한민국	15,491	16,915	4%	4%
6	태국	14,902	16,209	4%	4%
7	이란	13,299	14,122	4%	4%
8	스위스	9,785	12,340	3%	3%
9	싱가포르	11,531	12,145	3%	3%
10	사우디아라비아	12,793	11,944	3%	3%

자료: IMF 국제 상품무역 통계

- (주요 수출 품목) UAE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성 연료·화학제품 및 자원 파생 제품류이며, 금·다이아몬드도 재수출 품목의 영향으로 상위권 위치
 -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89.7%를 차지하는 편중된 구조

2024 UAE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24년/'23년)
1	광물성 연료, 광유 및 종류물	175,896	54.3	1.0
2	진주, 귀석·반귀석, 귀금속	73,048	22.5	20.8
3	알루미늄 및 그 제품	8,735	2.7	5.6
4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231	2.5	5.0
5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 장치	6,885	2.1	9.0
6	전기 기계 및 장비, 그 부품	6,201	1.9	0.0
7	구리 및 그 제품	4,131	1.3	30.1
8	철강 제품	3,065	0.9	22.9
9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품	2,567	0.8	68.1
10	철 및 강	2,243	0.7	-30.6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주요 수입국) '24년* UAE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인도, 미국, 튀르키예, 일본

* '25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UAE 전체 수입의 40%에 육박, 중국은 수입 점유율 18.0%로 압도적 1위 차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의 1.0% 수준

UAE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1	중국	77,419	85,047	18%	18%
2	인도	30,449	33,350	7%	7%
3	미국	26,869	29,584	6%	6%
4	튀르키예	17,656	19,672	4%	4%
5	일본	15,172	16,729	4%	4%
6	독일	11,299	12,492	3%	3%
7	베트남	11,054	12,316	3%	3%
8	스위스	11,210	11,836	3%	3%
9	이탈리아	10,073	11,388	2%	2%
10	기니	9,048	10,736	2%	2%
19	한국	4,642	5,170	1%	1%

자료: IMF 국제 상품무역 통계

- UAE의 주요 수입 품목은 귀금속*, 기계**, 자동차, 에너지 관련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부가 산업체와 소비재가 혼재
 - * 재수출용 및 고급 소비시장 수요 반영
 - ** 인프라 투자 및 산업 디지털화 확산에 따라 꾸준히 성장
 -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0% 미만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를 반영

2024 UAE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24년/'23년)
1	진주, 귀석·반귀석, 귀금속	53,226	15.8	11.3
2	전기 기계 및 장비, 그 부품	51,222	15.2	13.2
3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 장치	39,969	11.8	15.9
4	자동차	29,713	8.8	20.4
5	광물성 연료, 광유 및 종류물	21,219	6.3	18.6
6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품	8,211	2.4	90.6
7	선박, 보트 및 구조물	7,354	2.2	18.7
8	플라스틱 및 그 제품	6,857	2.0	7.7
9	철강 제품	6,417	1.9	16.2
10	철 및 강	5,729	1.7	10.7

자료: Global Trade Atlas

□ 對한국 교역 동향

- (교역) '25년 9월 누계 기준 對UAE 교역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1% 감소
 - 對UAE 원유 수입으로 인해 지속 무역적자 기록, '25년 9월 무역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24.2억 달러 감소해 무역수지 완화
 - * UAE는 주 에너지원 공급망으로 원유·석유제품의 수입이 적자 구조의 주 요인
- (수출) '25년 9월 누계 기준 對UAE 수출은 39.4억 달러로 UAE는 튀르키예(71.6억 달러)에 이은 중동에서 2번째 수출 대상국
 - 주요 품목(자동차, 우라늄, 공기조절기)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 (수입) '25년 9월 누계 기준 對UAE 수입은 117억 달러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209억 달러)에 이은 중동 지역 2번째 수입 대상국
 - 국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에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 * '25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원유·석유제품 수입 감소액은 24.3억 달러로 18.3% 감소

對UAE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對UAE 수출		對UAE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1년	3,975	8.8	7,319	28.6	△3,344
2022년	3,967	△0.2	15,493	111.7	△11,526
2023년	4,432	11.7	16,423	6.0	△11,991
2024년	5,067	14.3	17,931	9.2	△12,864
2025년 9월(누계)	3,939	2.5	11,695	△16.6	△7,756

주: '25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수출 품목) '25년 9월 누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4억 4,300만 달러, 11.2% 비중), 자동차 부품(2억 4,000만 달러, 6.1% 비중), 우라늄(2억 2,700만 달러, 5.8% 비중), 기호식품(1억 9,700만 달러, 5.0% 비중),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억 9,400만 달러, 4.9% 비중) 등
 - 한국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 4기가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며 그간 수출이 없던 우라늄* 및 원전 관련 기자재 수출 증가
 - * 우라늄 수출 '18년, '19년 0 → '20년 약 1억 5,000만 달러
 - 한류 확산과 더불어 화장품 수요가 대폭 확대, '25년 9월 비누치약·화장품 수출 1억 9,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2% 증가(총 수출 대비 4.8% 비중)
 - * 화장품 수출액 '15년 약 900만 달러 → '24년 1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초 1억 달러 돌파 → '25년 상반기 1억 달러 돌파

한국의 对UAE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5,067	14.3		총 수출	3,939	2.5
1	자동차	553	14.4	1	자동차	443	12.2
2	자동차 부품	364	3.7	2	자동차부품	240	△15.2
3	우라늄	273	△10.5	3	우라늄	227	35.9
4	석유제품	254	24.7	4	기호식품	197	23.9
5	기호식품	190	△1.7	5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94	50.4
6	원동기 및 펌프	178	29.6	6	비누치약 및 화장품	191	59.2
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77	43.3	7	무선통신기기	160	60.0
8	비누치약 및 화장품	283	90.4	8	석유제품	132	△37.1
9	합성수지	172	9.0	9	전력용기기	125	135.8
10	무기류	145	△18.1	10	합성수지	110	△14.1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 (수입 품목) '25년 9월 누계 기준, 한국의 수입 품목은 에너지 부문에 집중, 원유(76억 3,000만 달러, 65.3% 비중)와 석유제품(32억 2,000만 달러, 27.6% 비중)이 전체의 92.8%
 - 석유 및 파생 제품 외 對UAE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 동광, 금은 및 백금 등 광물과 원자재 위주로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과 수입액은 미미한 편

한국의 對UAE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17,931	9.2		총 수입	11,695	△16.6
1	원유	11,902	21.5	1	원유	7,632	△17.1
2	석유제품	4,983	△6.2	2	석유제품	3,222	△21.0
3	알루미늄	272	15.4	3	알루미늄	248	19.2
4	천연가스	241	△48.3	4	동광	142	19.3
5	동광	161	55.5	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04	N/A
6	동제품	97	△18.0	6	천연가스	97	△21.1
7	기타금속광물	64	△18.7	7	금은 및 백금	52	116.7
8	LPG	46	175.7	8	동제품	50	△35.9
9	석탄	43	6,666.3	9	기타금속광물	47	△7.8
10	금은및백금	24	6,506.3	10	석유 및 화학기계	9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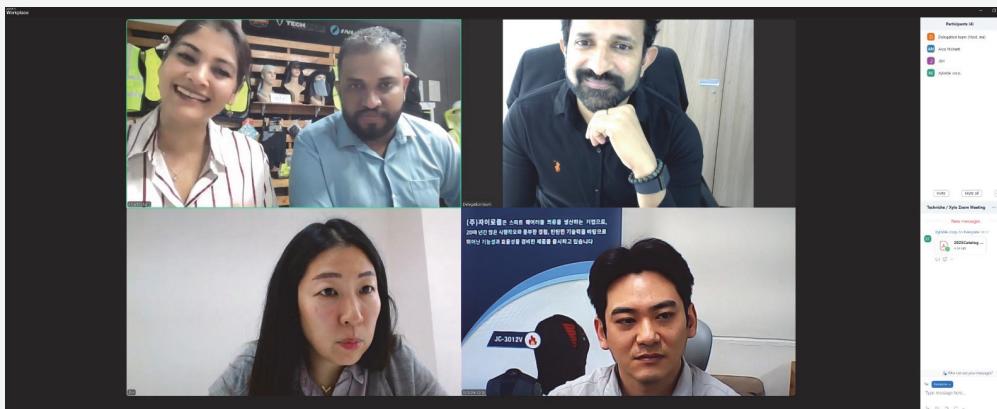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 UAE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UAE 진출전략 : 기능성 의류기업 X사(현지 T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바이어 T사가 원하는 니치 상품(기능성 쿨링 조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가능했으며, 현지 기후 조건에서 성능이 매우 우수함.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 가격이 너무 높거나 바이어가 원하는 성능이 아니어서 국내 기업 X사의 제품이 높은 경쟁력을 가짐
 - T사와 수출을 진행하며 X사는 매우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아 T사가 카타르 프로젝트에 해당 품목을 적극 추천하여 새로운 수출길을 여는 계기가 됨
- 필수 인증 : 없음
- 성약 소요기간 : 약 3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기존 두바이무역관 마케팅 사업에 참여했던 바이어가 해당 품목을 희망한다고 요청하여 두바이무역관 직원이 KOTRA 고객 리스트에서 국내 기업 X사 발굴 및 연결 지원. X사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이어와 화상 미팅 등을 하며 UAE 수출에 임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분야에 특화된 단일 회사와 협력하며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은 것이 향후 더 큰 거래로 이어짐
 - 한국 기업이 추가 신제품 지원을 통해 바이어가 한국 기업의 신규 제품을 함께 홍보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





성공 사례로 보는 UAE 진출전략 : 화장품 기업 J사(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프리미엄 제품처럼 보이는 포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K-뷰티 트렌드에 맞추며 품질도 좋아 재구매로 이어짐
 - 보통 현지 드러그스토어나 매장에서 모든 K-뷰티 제품이 한 매대를 차지하는데, 이례적으로 J사의 브랜드가 대형 오프라인 마트인 까르푸와 유니언에 단독 매대를 확보할 정도로 인기가 많음
- 필수 인증 : ECAS, EQM, Halal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약 4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수출24의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을 신청한 국내 기업에 매칭한 바이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대부분 UAE의 바이어는 브랜드를 함께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많지만 일부 국내 기업은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려 하고 브랜드 성장 전략이 부족할 수 있음. 혹은 동일 브랜드 제품이 여러 판매처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 혼란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첫 1년은 단일 유통사(Single Distributor)와 협력하고, 충분한 주문 실적이 확보되면 독점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및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UAE 수입시장의 25.5%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귀금속, 기계류, 자동차 등
 - 중국(18.3%)은 UAE의 최대 수입 파트너이나 점유율은 2년 연속 소폭, 하락 전자·기계·경공업 소비재 부문 중국 의존도 높은 편
 - 인도(7.2%)는 '22년 7.7% 대비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금·보석·석유제품 등 재수출 품목에서 강세를 보이나 재수출 시장 변동성에 취약
 - 미국(6.4%)은 '22년 6.1%에서 소폭 상승 후 안정세. 항공기·의료기기·에너지 설비 등 고부가 장치 중심 수출로 첨단·고부가 산업재 공급국 지위 유지
 - 튀르키예(4.2%)는 '22년 2.7%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 철강·건자재·섬유·보석류 등에서 가격 및 납기 경쟁력을 보유, 중간재·건자재 공급 허브로 부상
 - 일본(3.6%)은 자동차·공작기계 등 산업재 중심의 전통적 강점 분야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나타내며 안정적 점유율 유지
 - 한국(1.1%)은 3년간 시장점유율 보합세를 보였으며 기계·부품 분야 경쟁력 있으나 점유율 확대 동력 부족

UAE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
중국	19.1	18.5	18.3	
인도	7.7	7.3	7.2	
미국	6.1	6.4	6.4	
튀르키예	2.7	4.2	4.2	
일본	3.4	3.6	3.6	
한국	1.2	1.1	1.1	

자료: IMF 국제 상품무역 통계

□ 수입 규제 등 비관세장벽

- (수입 규제) UAE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제도를 표방하지만, GCC 차원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협조 분위기
 - GCC 차원에서 한국산 차량용 배터리와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며 역내 산업 보호 중

2025년 UAE 對한국 수입 규제 현황

HS코드	품목명	규제 형태	최종판정결과 (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 (판정결과)
850710	납축전지 (Electric lead acid accumulators of capacity of 35 up to 115 Amp hour)	반덤핑 (규제 중)	'17.6.25.~ '28.4.22.	12%~25%
390690	고흡수성 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	반덤핑 (규제 중)	'23.1.26.~ '28.3.3.	124%

자료: WTO

• (비관세장벽) TBT 강화 추세

- 산업첨단기술부(MOIAT)를 중심으로 산업표준화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소비재뿐 아니라 산업체까지 규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
 - * ECAS 규제품목 :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향수, 페인트, 생분해 플라스틱 백, 전자담배, 세제, 식품접촉물질, 아기용품, 조명기구, 냉장고, 세탁기, 주스와 음료수, 우유와 유제품, 에너지 드링크, 엘리베이터, 윤활유, 전자담배 외
- 무역 관련 환경규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 제품의 재료·생산·폐기 전 과정이 규제 대상화 추세

다. 산업

□ 유형별 전체 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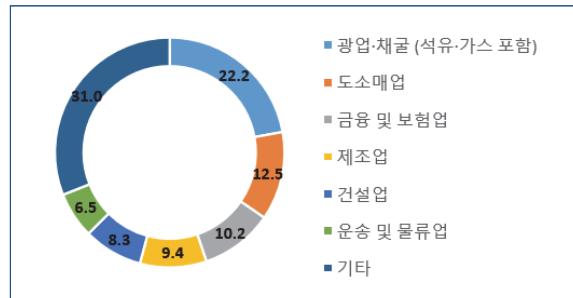
- '24년 석유·가스 산업의 GDP 기여액은 1,225억 달러로 총 비중은 22.2%.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 결과 '13년 35.6% 대비 하향 조정
- * 연방(UAE Vision 2021·UAE Centennial Plan 2071)과 토후국(Emirates Economic Vision 2030·Dubai Industrial Strategy 2030) 차원의 산업 다각·고도화 정책

UAE GDP 대비 석유·가스 산업 비중

연도	금액(백만 달러)	비중(%)
2022년	149,427	29.2
2023년	122,717	23.5
2024년	122,460	22.2

자료: UAE 연방통계청

〈UAE 2024년 산업별 GDP 기여 비중〉



- UAE 수출은 전통적으로 원유 및 에너지 산업 부산물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비석유 수출 확대에 따른 구조 변화 감지
 - '22년 전체 수출 대비 광물성 연료(HS 27) 비중 62.5%에서 '24년 54.1%로 감소
 - 재수출 허브 기능 강화에 따라 귀금속, 전자기기, 자동차 등 비석유 수출 품목 확대 추세

최근 UAE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2022년			2023년			2024년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27	광물성 연료	62.5	27	광물성 연료	55.8	27	광물성 연료	54.1
71	귀금속	14.3	71	귀금속	19.6	71	귀금속	22.5
76	알루미늄	3.1	76	알루미늄	2.6	76	알루미늄	2.7
39	플라스틱	2.6	39	플라스틱	2.5	39	플라스틱	2.6
85	전기 기계	2.1	84	원자로	2.3	84	원자로	2.3

자료: Global Trade Atlas(한국, 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부 산업 동향

- (석유·가스) '24년 UAE GDP 22.2% 차지, 비석유 부문 GDP 기여도 확대에도 석유·가스는 여전히 UAE 대표 산업. 비료, 알루미늄,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며 UAE 경제의 중추적 역할
- (도·소매) GDP 12.5% 차지, 두바이·아부다비 중심 대형 쇼핑몰과 까르푸·루루 등 하이퍼마켓 주도, '25년 전자상거래·관광 소비 확대로 호조세이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시 고급 소비품 매출 변동성 존재
- (금융·보험업) GDP 10.2%, 두바이 DIFC·아부다비 ADGM 기반 중동 대표 금융 허브. 디지털 금융·핀테크 발전과 중앙은행의 규제·제도적 안정성 강화가 산업 성장에 호재. 가상자산 분야 적극 육성 중
- (제조) GDP 9.4%, 알루미늄·석유화학·제약·방산 등으로 구성, 정부 지원 통한 제조업 육성으로 자국 내 부가가치 창출 역량 강화 중
- (건설) GDP 8.3%, 인프라(재생에너지·수자원·교통), 도시개발 국책사업 활발 및 철도·스마트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로 호조. 다만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부담
- (운송·물류업) GDP 약 6.5%, 공항(두바이·아부다비 공항), 항공(에미레이트, 에티하드, 플라이 두바이), 해운(DP World, 제벨알리항, 칼리파항)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기반 글로벌 물류 허브. 에티하드 레일로 철도망 확대 중이며 관세 간소화·첨단기술 도입으로 효율화 추진 중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UAE FDI 유치 규모는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6% 증가, 사상 최대치 기록
 - FDI 유입 글로벌 10위로, MENA 지역 FDI 유입의 37% 차지하며 지역 내 투자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 낮은 세금, 법제 환경 개선, 외국인 친화적 정주 환경 변화, 항공·물류·전시 거점 역할 확대, 역내 갈등 확대 및 중립적 안보 유지 노력 등이 주요 요인
 - * (세제) 법인세 9%, 부가가치세 5%, 소득세 0%
 - * (법제) 외국인 지분 100% 보유 허가, 상업 에이전시 법 개정 등
- '31년까지 연간 FDI 유입량을 두 배로 늘리고, 누적 FDI 규모를 2조 2,000억 디르함(약 6,000억 달러)로 확대 목표
 - * UAE의 국가 투자 전략 2031(UAE's National Investment Strategy 2031)

UAE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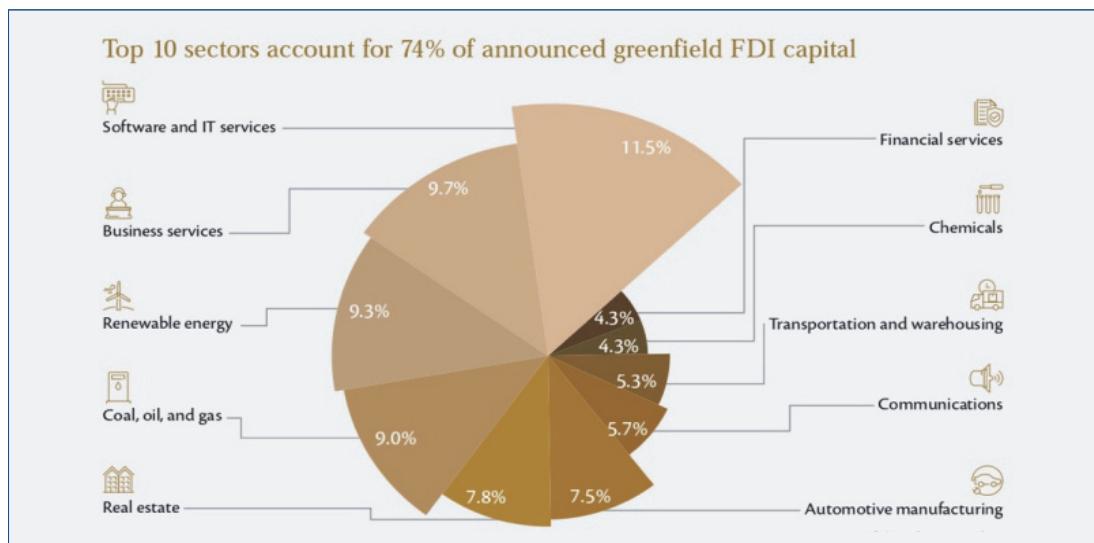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입액	19,884	20,667	22,737	30,688	45,600

자료: UNCTAD

□ 전체 FDI 중 47%를 차지하는 그린필드 FDI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확대

- '24년 기준, 전 세계 그린필드 FDI 발표 건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숫자인 1,369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145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되어 투자의 질적·양적 성장을 보임
- UAE 전체 그린필드 FDI 금액의 약 58%를 차지하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11.5%), 비즈니스(9.7%), 에너지(재생 9.3%, 석유 9%), 부동산(7.8%)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그린필드 FDI 유치

〈UAE 상위 10개 그린필드 FDI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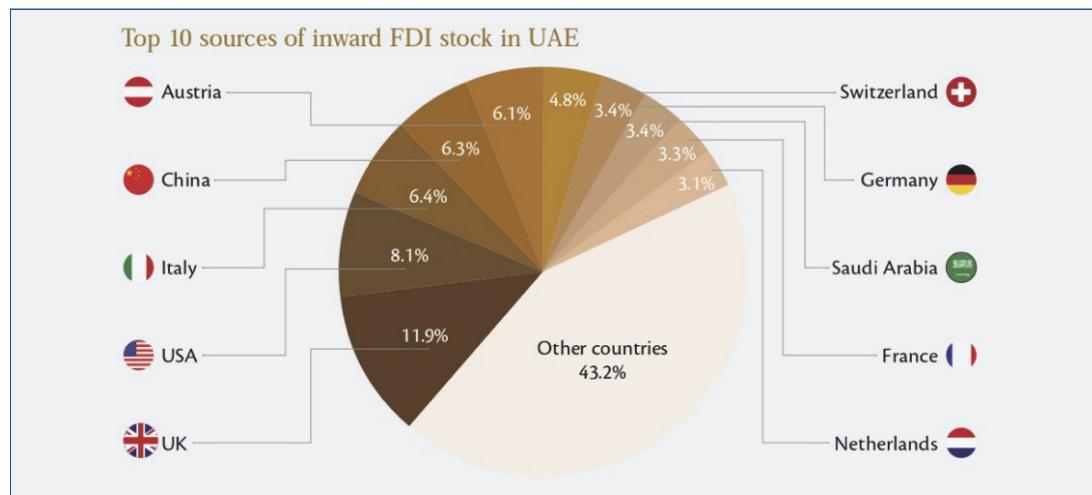


자료: UAE Foreign Direct Investment report 2025(Ministry of Investment, UAE)

□ UAE FDI 주요 10개국과 그린필드 FDI 주요 10개국

- 영국(11.9%), 미국(8.1%), 이탈리아(6.4%), 중국(6.3%) 등 상위 10개국이 전체 FDI의 56.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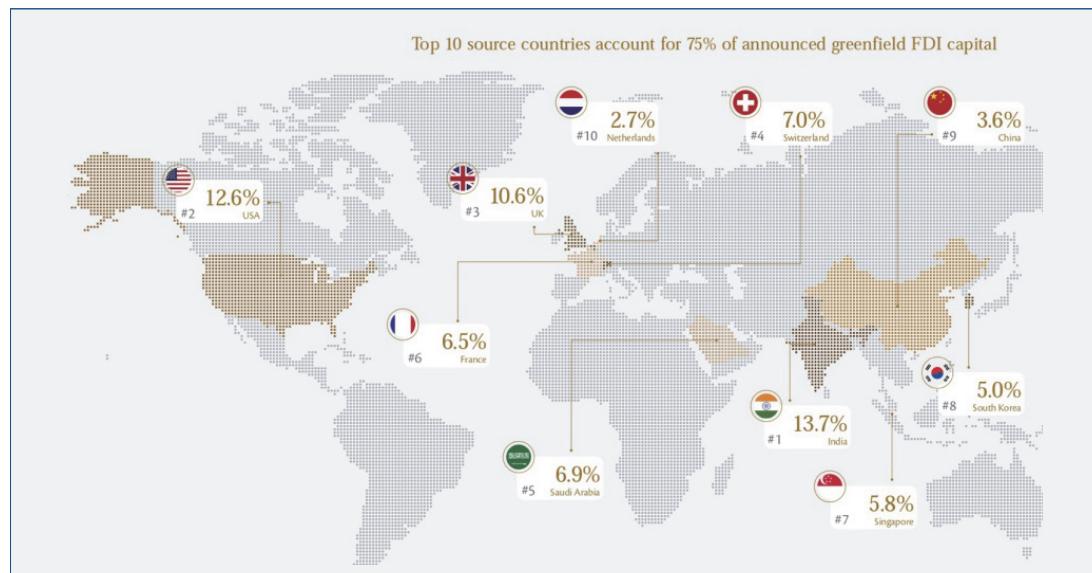
〈UAE FDI 유입 주요 10개국〉



자료: UAE Foreign Direct Investment Report 2025(Ministry of Investment, UAE)

- 그린필드 FDI의 상위 10개국이 전체 그린필드 FDI 자본의 75% 차지하며, 한국은 5.0%로 8위를 기록
 - * 인도(13.7%), 미국(12.6%), 영국(10.6%), 스위스(7.0%), 사우디아라비아(6.9%) 등

〈UAE 그린필드 FDI 유입 주요 10개국〉



자료: UAE Foreign Direct Investment Report 2025(Ministry of Investment, UAE)

□ UAE의 對한국 투자 현황

- 주요 투자 주체는 국부펀드, 민간 개발사로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 진행 중
 - UAE의 對한국 투자는 주로 서비스업 중심이며, 특히 '25년 6월 전체의 99% 이상 차지

UAE 기업의 산업별 對한국 투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농·축·수산·광업	0	0	70,000	38,740	0
농·축·임업	0	0	70,000	38,740	0
제조업	0	100,000	50,000	30,000	73
식품	0	0	0	0	0
기계장비·의료정밀	0	100,000	50,000	0	0
전기·전자	0	0	0	30,000	0
서비스업	392,117	100,453	349,581	327,559	76,632
도·소매(유통)	273,590	100,076	71,476	26,525	71,545
운수·창고	56,104	0	43,941	57,169	87
정보통신	423	0	0	90,635	0
금융·보험	0	100	183,992	29,555	5,000
부동산	0	0	0	100,000	0
사업지원·임대	0	0	50,076	0	0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62,000	277	95	23,675	0
전기ガ스·수도건설·환경정화	53,575	639	20,000	0	0
전기·가스	596	639	0	0	0
수도·하수·환경정화	0	0	20,000	0	0
종합건설	52,784	0	0	0	0
전문직별 공사	195	0	0	0	0
총계	445,692	201,092	489,581	396,299	76,7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신고 기준)

□ 한국의 UAE 투자 진출 동향

- '25년 3월 한국 對UAE 투자액은 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7% 감소
 - 對UAE 투자 진출 역사는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80년 시작되었으나 투자보장협정 발효 ('04.6월) 이후 본격화
 - 한국 대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가 주요 형태, 투자 금액 기준 '20년 6억 7,000만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급감
 - * '19~'20년 UAE에서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 컨소시엄이 할리바 유전 개발 사업 참여 및 유전 원유를 생산함에 따라 투자 금액 대폭 확대

한국의 對UAE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개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Q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투자 금액	21	-8.7	35	66.7	39	11.4	8	-66.7
신규 법인 설립 건수	16	60	16	0	26	62.5	6	-14.3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AI 기업 N사,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AI 앱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플랫폼 기업으로 B2B 및 B2G 시장에 중점을 둠. 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얼굴 인식, 보안 및 감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AI 솔루션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운전자 인증 등이 있음
- (성공 사례) KOTRA의 지원을 통해 RTA와 PoC(Proof of Concept) 체결, 두바이 경찰청이 주관한 월드 두바이 폴리스 서밋 2025, 도로 안전 부문 3위 수상
- (시사점) 교통, 보안, 스마트시티 분야 등은 현재 UAE가 중점 투자하고 있는 분야임을 확인. 이처럼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KOTRA 후속 지원이 중요(장기 성장 지원)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콘텐츠 기업 R사, 아부다비 무바달라 산하의 엑셀러레이팅 기관 Hub71 최종 합격 및 투자

- (기업 정보) 클라우드 기반의 3D 크리에이션 엔진으로, 현재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에듀테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
- (성공 사례) KOTRA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 지원을 통해 아부다비 출장 후 Hub71 Digital Asset 부문 최종 합격 및 ADGM 입소
- (시사점) AI, 디지털 자산, 콘텐츠 등은 현재 UAE가 중점 투자하고 있는 분야임을 확인. 국내 기업이 ADIO, Hub71 등 출장 방문을 통해 직접 기업 발표를 진행하며 이뤄낸 성과임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제도·법규 측면

- (외국인 지분 제한) 전략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100% 소유 제한
 - * 보안/방위, 통신,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보험, 은행 외환 업무 등
- (에미라티제이션) 20인 이상 기업 UAE 국민 고용 의무로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운용 제약
- (면허 및 등록 절차) 토후국·프리존별 사업 면허 관할기관 및 정책 상이, 의료·식품·금융 등 일부 산업 사업 면허 외 업종별 별도 관할기관 페밋 필요
 - * 예시 : 연방 보건예방부(MOHAP, 의료), 중앙은행(CBUAE, 금융) 등
- (세제 및 준법) 법인세(9~15%), VAT(5%), 특소세* 등 세제 도입·변경 활발
 - * 담배, 주류, 탄산음료 등

- 비용·운영 측면

- (설립 비용) 사무실 임대, 라이선스 취득 등 높은 초기 설립비용
- (운영·인프라 비용) 물류·에너지·IT 인프라 비용 선진국 수준 이상
- (인건비) 급여 외 비자·의료보험·노동카드 등 추가 행정비* 부담
 - * 연간 5,000~1만 2,000디르함(약 1,400~3,300 달러)
- (현지 인재 부족) 숙련·기술직은 외국인 의존, 비자 및 인건비 상승 압력

- 시장·산업 측면

- (국영기업 주도 시장) 국영기업 주도 산업구조로 외국 기업 직접 경쟁 어려움
- (현지화 정책) 조달·프로젝트 참여 시 로컬 파트너 필수, ICV 제도 등 현지 기업 우대

2. 유망 산업

가. AI

□ UAE AI 산업, 시험 운영을 넘어서 본격 가동 단계로 진입

- (시장 규모) '25년 UAE의 AI 시장 규모(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는 약 71억 9,000만 달러로 추정
 - * '23년(34억 7,000만 달러) → '30년(463억 3,000만 달러), CAGR 43.9%를 2년('24~'25년) 적용하여 산술 추정(TRENDS Research & Advisory, '25년 2월)
- 데이터센터·GPU 등 연산 인프라가 도입되는 속도에 맞춰, 이를 가동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통합·보안·규제준수(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 인프라 구축 → 현장 업무 적용 → 운영 범위 확대가 단계적으로 맞물리며, 계약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이 장기화되는 본격 확장 국면에 진입
- (국가전략) UAE는 '17년 'UAE 국가 AI 전략 2031'을 통해 '31년까지 AI 분야 세계적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허브 위상·인프라 구축·국제 협력망 확대 등 8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을 본격화하고 있음

UAE 국가 AI 전략 2031 목표

목표	주요내용
1 AI 관련 명성 구축	전 세계 인재 및 비즈니스 유치하여 AI 테스트 진행
2 AI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양자 컴퓨팅 파일럿 개발
3 AI에 적합한 생태계 개발	해외 기업의 AI 인센티브 제도 운영, 스타트업 지원
4 고객 서비스 전반에 AI 채택	AI가 정부 부문에 통합되도록 지원
5 AI 관련 미래 직업 교육	무료 공공 AI 교육 과정 운영, 정부 직원을 위한 AI 교육 실시
6 세계적인 연구 능력 유치	국립 가상 AI 연구소, AI 라이브러리 운영
7 AI 테스트 베드 위한 인프라 제공	데이터 공유 촉진 및 개인정보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8 효과적인 규제 보장	윤리 및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 검토

자료: UAE AI·디지털경제·원격근무애플리케이션부

- (정책·거버넌스) '24년 AIATC(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신설·정비로 국가 차원의 정책·투자·프로젝트 조정 체계가 마련됨. 두바이는 '24년 AI 청사진(Universal Blueprint for AI)을 통해 최고AI책임자(CAOI) 임명, 데이터센터 유치, AI 캠퍼스, 교육 등 실행 과제를 제시
- (인프라 가시화) '25년 du×Microsoft 초대형 데이터센터 발표, 'Stargate UAE'('26년 200MW 1차·총 5GW) 로드맵 공개로 컴퓨트·전력·부지 확충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
- (국제 파트너십 강화) '24년 Microsoft의 G42 지분투자(15억 달러), 이사회 합류로 Azure* 기반 공동 상용화·조달 채널이 열림. 또한 '25년 AIP(대규모 AI 인프라 파트너십) 구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자본·기술 연계 강화

* Microsoft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UAE 2025년 AI 관련 프로젝트·투자

시기	프로젝트/투자	규모(금액/용량)	주체
'25년 1월 29일	아부다비 'AI-native 정부' 전략 ('25~'27년)	35.4억 달러	아부다비 정부
'25년 3월 19일	'새 발전소·에너지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250억 달러/25GW	ADQ(UAE 국부펀드) ECP(미국 에너지 투자사)
'25년 3월 19일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글로벌 기업들 합류	1,000억 달러(잠정)	MGX, BlackRock, GIP, Microsoft, NVIDIA, xAI
'25년 4월 22일	초대형 데이터센터 두바이에 건설 계획	5.4억 달러	du(UAE통신사), Microsoft
'25년 5월 22일	'Stargate UAE'(AI 전용 데이터센터) 아부다비에 구축 계획	1GW *총 계획 용량은 5GW	G42, OpenAI, Oracle, NVIDIA, SoftBank, Cisco
'25년 7월 20일	제2회 UAE AI Award 2025 개최	—	UAE 정부
'25년 9월 14일	UAE 정부 최고AI책임자 50명, 10일간 미국 주요 빅테크 본사 방문	—	연방 AI 오피스 Dubai Centre for AI

자료: 현지 주요 뉴스

- 아부다비는 자본·연구·인프라를 결집하여 AI 산업의 주요 기반을 다지고, 두바이는 실증 무대를 제공해 빠른 사업화와 시장 형성을 견인
 - (아부다비) 원천기술, 초대형 인프라, 대규모 자본을 결집해 국가 단위의 AI 플랫폼을 체계화. 거버넌스는 AIATC(인공지능·첨단기술 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정책·투자를 조정하고, 투자 플랫폼(MGX)으로 글로벌 자본을 결집
 - (두바이) 행정·산업 전반의 상용화와 글로벌 기업·인재 유치에 집중. 주요 기관은 Dubai Centre for AI(두바이 AI 센터)와 Digital Dubai(두바이 디지털청)이며, 각 정부기관에 최고AI책임자(CAOI)를 지정함

아부다비 vs 두바이 AI 전략 비교

구분	두바이	아부다비
전략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산업 전반에 AI 신속 도입·상용화 글로벌 인재·기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기술·대형 인프라 중심 초거대 투자로 컴퓨터·모델·인력 생태계 구축
대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bai Centre for AI(두바이 AI 센터) Digital Dubai(두바이 디지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ATC(인공지능·첨단기술 위원회)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기관에 최고AI책임자(CAIO)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ATC 국가 차원 조정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iversal Blueprint for AI('24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 AI 전용 클러스터/허브 제공 - 학교 'AI 주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MGX(AI 전문 투자 플랫폼) 론칭 국가 AI 인프라·투자 로드맵 가동
공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민원 안내 Rashid AI 챗봇(IBM 협력, '19년) RTA-Cruise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Dubai Autonomous 2030(자율주행 2030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서비스(의료·에너지·물류 등)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전형 공무원 AI 교육 Dubai AI Campus 통한 산학협력·현장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ZUAI(무함마드 빈 자이드 AI 대학), ATRC(첨단기술연구위원회), TII(기술혁신연구소) 주도
투자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샌드박스·면허로 빅테크·VC 유치, 테스트 베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MGX, 1000억 달러 목표로 글로벌 AI 인프라·기업 투자 (BlackRock-Microsoft 협력 등)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Microsoft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rgate UAE' 1GW('26년 200MW 1차 가동) 포함 총 5GW AI 캠퍼스, G42 주도 초대형 연산 인프라
'26년 주요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bai AI Week 2026(4월 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Everything Global 2026(5월 잠정)

자료: 두바이무역관 작성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25년 들어 아부다비 G42 그룹이 자본(투자)·인프라(클라우드/데이터센터)·모델(AI 제품)을 동시에 키우며, 단순 기술 기업을 넘어 국가형 AI 플랫폼 운영자로 자리 잡음
 - Microsoft의 15억 달러 투자와 이사회 합류('24년 4월) 이후 양사의 관계는 단순 협력 파트너에서 장기 전략 동맹으로 격상. 양측은 앞으로 규정 준수·보안·공공 조달을 함께 설계하고 관리하며, 전략·투자·제품 로드맵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게 됨

UAE AI 분야 주요 기업 동향

로고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아부다비 설립, UAE 대표 AI·클라우드 그룹, 국가 디지털 전략 주도 • 보건·금융·에너지·우주 등 다분야 적용 • MS 투자 유치, 아랍어 대형언어모델(Jais) 개발
	Core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경 G42 산하 자회사 통합 출범, 클라우드·데이터·AI 플랫폼 제공 • 정부·기업 대상 데이터 관리·AI 솔루션 지원 • Jais 모델 상용화, 해외 진출 확대
	Pres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2 계열 빅데이터·AI 분석 기업, 공공·금융·에너지·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 '23년 아부다비 증시 상장 • '24년 ADNOC과 협력, AIQ 지분 확보
	AI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ADNOC-G42 합작 설립, 에너지 산업 특화 AI 솔루션(탐사·생산·안전) • 최근 Presight 51%·ADNOC 49% 지분 구조 재편 • ADNOC 디지털 전환 핵심 플랫폼
	M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G42 Healthcare-Mubadala Health 합병, 정밀의료·유전체학·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 UAE 국가 유전체 프로젝트 수행 • 의료 AI 모델 개발, 해외 협력 확대
	Space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Bayanat-Yahsat 통합 출범, 위성·지리공간 데이터·우주 AI 솔루션 제공 • 지도 제작·원격 탐사·항공물류 데이터 지원 • UAE 우주경제 전략 핵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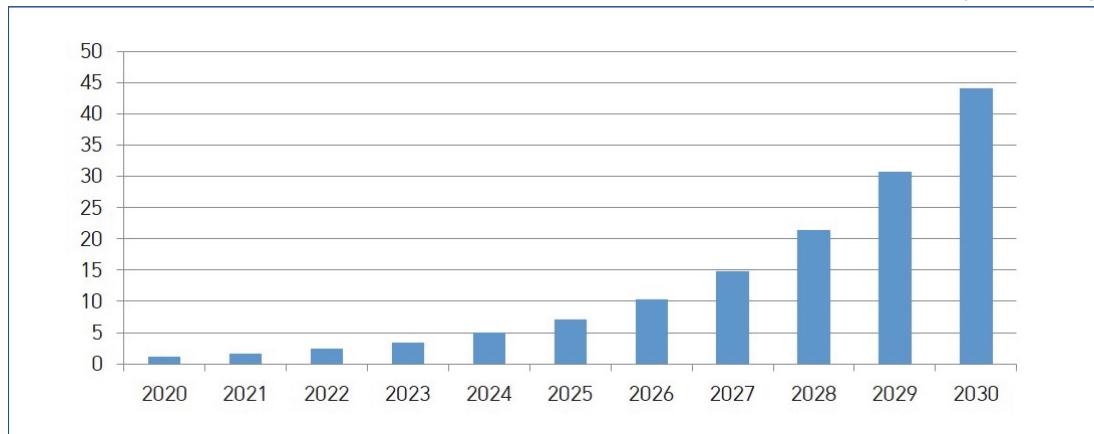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 시장 전망 및 기회 요인

- (시장 전망) AI는 UAE 비석유 경제 다각화 핵심으로 자리잡았으며, '31년까지 비석유 GDP의 최대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UAE AI 시장은 '24~'30년 연평균 43.9% 증가, '30년에는 현재 대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

〈UAE AI 산업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rand View Research(2023)

- 산업별로는 '30년까지 금융, 통신 부문이 연평균 30%대 성장하며 여전히 주축을 이뤄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35% 이상 성장, 1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교육·행정 부문도 AI 도입 확산으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며 스마트시티·인프라 분야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약 40%씩 성장하여 AI 응용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전망
- (유망 분야) UAE 정부는 '디지털 정부 전략 2025*'를 발표하며, UAE PASS 앱을 도입하여 모든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인증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정부가 직접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 * '25년까지 정부 주도로 국가의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 UAE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도시 확장 수요 발생하여 '두바이 2040 도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AI 기반 도시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중
 - 두바이교통청(RTA)은 'AI Week 2025'에서 총 81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RTA AI 2030*' 전략 발표, 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도입을 본격화함. 국내 기업 N사는 동 전략에 부합하는 AI 기술력으로 RTA와 협력 성공
 - * 함단 왕세자의 지시로 두바이 미래재단과 함께 발표한 국가전략
 - 두바이 왕실이 직접 주관한 중동 최대 공공 AI 행사(AI Week)라는 국가적인 플랫폼 내에서 계약이 성사되어 단순 수주를 넘어 한국 기술이 UAE의 국가전략 수행 파트너로 공인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나.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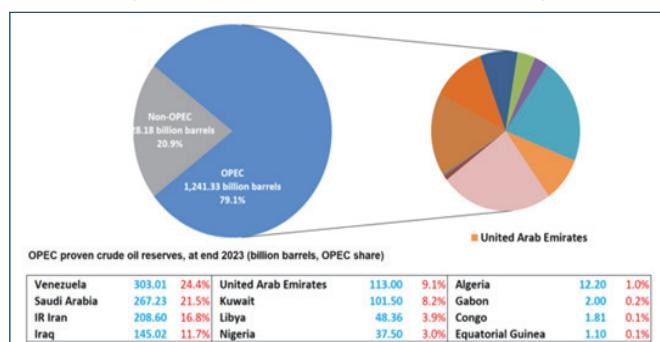
□ 석유 없는 미래 대비 에너지 전환 목표 설정

- (석유, UAE 주요 소득원) 세계 원유매장량 5위, 수출량 6위 등극. 고질적 유가 변동에 대한 취약성 극복과 글로벌 탄소 감축 기조 등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시도 중이나 석유는 여전히 UAE 주요 소득원
- 석유 산업 고도화 및 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다운스트림(정제·석유화학) 투자와 동시에 신규 유전 탐사(업스트림) 지속
- OPEC+ 감산 완화 논의에 따라 '25년 10월 일산 338만 배럴 배정

'24년 UAE 석유 생산 및 수출 현황

관련 지표명(단위)	수치
부존량(백만 배럴)	113,000
석유 생산량(천 배럴/일)	2,916
석유제품 생산량(천 배럴/일)	991
석유 수출량(천 배럴/일)	2,717
석유제품 수출량(천 배럴/일)	985

〈세계 주요국 및 UAE 원유 부존량 비교〉



자료: OPEC

- (재생에너지 패러다임 시작) 신규 발전원 개발에 따라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확대
 -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수입 의존도 축소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다각화, 지속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적극 확대
 - 아부다비, 두바이 대형 태양 에너지 기반 발전소* 준공,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 1~4호기의 순차적 상업 운전 등으로 원자력·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

* 아부다비는 여러 지역(Madinat Zayed, Sweihan 등)에 걸쳐 태양광·태양열 발전소 건설, 두바이는 1곳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에 단일 부지 세계 최대 시설 건설 집중

UAE 연료원별 에너지 공급량과 비중

		(단위: EJ,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총량/비중	4.26	-	4.71	-	5.05	-	5.15	-	5.48	-
	석유	1.62	38.0	1.91	40.6	2.19	43.4	2.41	42.7	2.29	41.8
	천연가스	2.51	58.9	2.55	54.1	2.51	49.7	2.24	46.8	2.57	46.9
	석탄	0.08	1.9	0.10	2.1	0.10	2.0	0.10	1.9	0.11	2.0
	원자력	0.01	0.2	0.10	2.1	0.18	3.6	0.38	7.4	0.44	8.0
	수소	-	-	-	-	-	-	-	-	-	-
	재생에너지	0.04	0.9	0.06	1.3	0.07	1.4	0.06	1.2	0.06	1.1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2023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 도입) UAE 정부는 '23년 7월 국가 에너지 전략 개정안(Updated UAE Energy Strategy 2050)을 발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여도 3배 확대라는 단기적 목표와 궁극적 넷제로를 표방하는 '50년까지 중장기적 청사진 포함
 - UAE 정부는 '17년, '통합 에너지 전략 2050'를 최초로 수립, 기존 천연가스 의존적(98%) 에너지 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재생에너지 44%, 원자력 6%)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국가 에너지 전략 개정안의 일환인 국가 수소 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통해 UAE 수소경제 성장과 동시에 '31년 세계 최대 수소 생산·수출국을 목표로 설정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UAE 에너지 산업은 국영기업·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하고, 글로벌·민간기업이 기술 제공자이자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로 성장
 - (석유·가스)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 ADNOC 산하 17개 자회사가 BP, Shell, Total, ExxonMobil, JODCO, 한국석유공사, GS 에너지 등 현지 진출 세계 유수 기업과 협약
 - (재생에너지) 아부다비 미래 에너지 기업(Masdar), 두바이 수전력청(DEWA) 또한 EDF Renewables, Simens Energy, GE,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과 협력 중

UAE 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로고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 세계 최대 산유 기업 중 하나이며 석유·가스 생산부터 석유화학, 수소·CCUS까지 사업 다각화를 추진. '45년 넷제로 목표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과 협력 확대 중
	MASDAR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UAE 재생에너지 분야 대표 기업으로 COP28을 계기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넓히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 태양광·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40개국 이상에서 전개 중
	DEWA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 두바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력·수도 부문 도시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 관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Solar Park)와 스마트그리드, 디지털 전환 주도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 시장 전망 및 기회 요인

- (산유국에서 에너지 허브로) UAE는 산유국에서 에너지 전환 플랫폼 국가로 위상을 확장 중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필수적
 - AI 기반 탐사·생산 최적화, 디지털 트윈, CCUS(탄소 포집·저장) 같은 첨단기술은 주로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입할 전망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전통 에너지 부문 견고한 파트너십 기반 재생에너지·탈탄소 기술협력 기회 증가
 - 한국의 최초 해외 건설 원전인 바라카 1~4호기에 이은 2차 프로젝트(5~8호기) 입찰 공식 발표 모니터링 필요

다. 제조업

□ 비석유 경제 전환 속 제조업 발전

- (제조업 GDP 기여도 확대 추세) '24년 UAE 제조업 기반 GDP 518억 달러, 총 GDP 대비 9.4% 기록함. '15년 8.9%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비석유 부문 다각화 정책 기조 속 상징적 의미
 -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파트너십 혹은 해외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 추진 중
 - 석유화학, 알루미늄 및 철강과 같은 에너지 집약·중공업*에서 시작한 UAE 제조업은 점차 식품(Nestlé, PepsiCo.), 제약(Julphar), 전기차(M Glory EV, NWTN), 우주 항공·방산(EDGE) 등으로 확장
- *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 에미리트 스틸·아칸(EMSTEEL), 보르주(Borouge), 뒤캡(Ducab) 등

UAE 제조업 GDP 기여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조업	33,962	34,536	36,873	38,456	38,398	32,138	37,083	43,726	49,466	51,808
총계	382,233	381,977	403,640	440,860	434,222	357,405	422,729	511,752	522,978	552,701
비중	8.9	9.0	9.1	8.7	8.8	9.0	8.8	8.5	9.5	9.4

자료: UAE 연방통계청

-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경쟁력·회복력 강화) 3,000억 디르함 산업 전략(Operation 300bn)을 통해 제조업을 첨단기술·수출 주도형 성장 동력으로 전환, 산업·기술 생태계 강화 목표
 - UAE 연방정부는 건국 50주년인 '21년, 탈석유 시대 대응을 위한 비전 2021(Vision 2021)을 발표, 최초의 지식기반 경제 구축 목표 설정('10년)
 - 토후국 차원에서 아부다비는 '06년, '경제 비전 2030(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고 아부다비 제조업을 견인할 7대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
 - 두바이는 '16년 발표한 '두바이 산업전략 2030(Industrial Strategy 2030)'을 통해 지식·지속 가능성·혁신 중심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 6대 제조업 분야 강화 목표

UAE 주요 제조업 육성 정책

구분	정책명	주요 내용
연방	Operation 300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제조업 중심의 비석유 경제로 전환 위해 ICV 프로그램, Made in the Emirates 품질 프로그램 등 추진 • 산업 규제·물류 체계 현대화, 경쟁력 있는 에너지 요금, R&D 프레임워크 5대 분야* 3,000억 디르함 규모의 산업 금융 지원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석유화학, 금속, 재생에너지 장비 등), 인프라(에너지, 운송, 디지털 인프라 등), 기술 (소프트웨어, IT 등), 헬스케어(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서비스 등), 식량안보(농축수산, 담수화 등)
연방	Vision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로드맵 • 이후 발표된 UAE Centennial 2071로 장기 목표 확장
아부다비	Economic Vision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내 비석유 부문 GDP 기여도 64%까지 확대 • 7대 중점 육성 분야 선정(산업금속, 건설기자재, 석유화학, 식음료, 소비재, 항공우주, 산업장비)
두바이	Industrial Strategy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내 제조업 부가가치 49억 달러 달성 • 6대 분야 제조업 기반 강화 목표(항공우주, 제약/의료기기, 식음료, 해양, 알루미늄/금속가공, 산업기계)

자료: u.ae

- (공급망 현지화 노력) 공공 조달 부문 내 ICV 적용 확대 및 자국 생산 제품 인증제도 운용 통한 핵심 역량 현지화, UAE 내 생산 촉진
 - (In-Country Value) 현지생산이나 자국민 고용 비중을 고려한 ICV 점수를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 평가 표준으로 도입. '24년 상반기 기준 31개의 연방, 토후국 정부 기관 및 주요 국영기업이 ICV 평가 제도 도입
 - * 현지생산(50%), 현지투자(25%), 현지인고용(15%), 외국인 거주 고용(10%) 등
 - (Made in the Emirates Mark) '22년 도입 인증 마크로 UAE에서 제조되고 국가 표준을 충족 한다는 품질 보증. 마크 보유 시 현지 고용·현지 조달 여부 간접 반영 잣대로 활용 가능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UAE 제조업, 토후국별 클러스터 특화 발전 중) 아부다비 중공업·첨단 제조, 두바이 경공업·다국적 제조 허브, 북부 에미리트 전통 제조 강자로서 토후국별 강점 산업군을 형성하며 UAE 전체의 제조업 생태계 다변화에 기여
 -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자유구역(KEZAD)과 무사파 산업단지(ICAD) 중심으로 EGA(알루미늄)*, EMSTEEL(철강), Abu Dhabi Ship Building(군용선박) 입주, 알아인(Strata, 항공부품), 루와이스 (Bourge, 석유화학) 및 SAVI(자율주행), AGWA(AgriTech), HELM(바이오), EDGE(방산) 등 미래산업 육성 중
 - * 두바이알루미늄(DUBAL)과 아부다비에미리츠알루미늄(EMAL) 합병 설립으로 두바이 생산라인도 보유 중
 - (두바이) JAFZA(7,000개 기업, 제조·조립 23%)와 DIP(Dubai Industrial Park) 중심으로 식품 가공, 농축산 허브로 글로벌 기업 MENA 생산기지 역할. Al Islami Foods(냉동식품), PepsiCo (음료), Unilever(소비재), 전기차 조립(M Glory EV) 등 유치
 - (북부 토후국) (샤르자) National Paints, Gulf Cable, (라스 알 카이마) RAK Ceramics, Julphar (제약) 외 시멘트·채석 등 건자재 산업 발달

UAE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동향

로고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mirates Global Alumin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알루미늄의 약 4%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프리미엄 알루미늄 제조업체이자 UAE 최대 비석유 산업 기업 • 원자재 채굴부터 정제, 제련, 재활용까지 우수한 통합 벤류체인 구축을 통해 330종 이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
	EMST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최대 철강·건축자재 제조기업. 고품질 철강 및 시멘트, 블록, 파이프, 드라이 모르타르 생산 및 글로벌 시장 공급 • 아부다비 증권거래소 상장사(ADX)로 비석유 산업 다각화 기여
	Bou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NOC과 Borealis 합작 ADX 상장 석유화학사로 에너지, 인프라, 포장, 모빌리티, 헬스케어, 농업 분야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공급 • UAE 루와이스에 세계 최대급 통합 단지 운영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 시장 전망 및 기회 요인

- 현지화 강화에 따라 해외 기업은 수출·유통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화, 현지생산·조립 기반이 필요해질 전망
 - UAE 정부는 정책, 금융, 규제 완화 삼박자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적극 육성 중이며 Made in UAE 브랜드 위상 강화 및 외국 제조사의 지역 허브화 유도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청정에너지·지속가능 제조, 첨단소재·부품, 스마트 제조·디지털 전환 등 한국의 강점 분야 현지 기업과 JV·MOU 체결을 통해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 자유무역지대(JAFZA, DIP, KEZAD, RAKEZ) 입주 고려 가능

주요 자유무역지대(프리존) 소개

프리존명	주요사항
제벨 알리 프리존 (Jebel Ali Free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www.jafza.ae 개괄 : UAE 최초, 최대 프리존 주요 산업 : 운송, 자동차, 식음료, 전자, 석유화학, 제조업 등
케자드 프리존 (KEZAD Free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www.kezadgroup.com 개괄 : 아부다비 통합 경제산업지구 주요 산업 : 금속, 폴리머, 식음료 가공, 자동차, 에너지, 운송 등
라스 알 카이마 프리존 (Ras Al Khaimah Economic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www.rakez.com 개괄 : 라스알카이마 토후국 대표 프리존 주요 산업 : 제조업, 항공, 기술, 미디어 및 교육 등

자료: 각 프리존 웹사이트

라. 방산

□ UAE 국방산업, 무기 수입국에서 방산 자립국으로의 도약

- UAE는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위에 속하며,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규모가 큰 방위산업 시장으로, '25년 국방예산은 약 329억 달러(GDP의 약 5.2%)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9.8% 증가(Fitch Solutions, '25년 4월)
 - 높은 에너지 가격이 국방 지출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25~'26년 국방예산은 추가 확대 예상

UAE 국방예산 추이('23~'29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단위: 백만 달러, %)
국방예산	26,873	29,985	32,920	35,407	37,452	39,521	41,639	
증가율	2.3	11.6	9.8	7.6	5.8	5.5	5.4	

자료: Fitch Solutions('25년 4월)

- 국영기업 EDGE를 축으로 한 UAE 방산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
 - EDGE 그룹은 '19년 UAE 정부가 25개 방산 기업을 통합해 만든 국영 방산 기업으로, UAE 방위산업의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은 각기 다른 분야를 담당하며 UAE의 방산 역량을 뒷받침함

EDGE 주요 자회사 개요

로고	기업명	주요 분야	특징
	HALCON	정밀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유도무기·드론 방어 체계 개발, 정밀 타격 솔루션 제공
	ADASI	무인·자율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자율 시스템 전문, 육상·해상·항공 무인기 통합 운영
	NIMR	지상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차·전술차량 제조, 중동 대표 전술차량 브랜드
	SIGN4L	전자전·사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전·사이버 방어 기술, 통신 교란·보호 시스템
	CARACAL	경·중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총·소총·기관총 등 경·중화기 생산, UAE 군·경찰 납품
	LAHAB	탄약·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 탄약·폭발물 생산, UAE 국방력 기본 인프라 담당
	AMMROC	항공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 항공기 정비·개조(MRO), UAE 공군 핵심 유지보수 지원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 수입 의존에서 현지생산·공동개발로 전환기
 - UAE는 수입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를 자립형 산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국산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이는 국방기술의 내재화, 첨단산업 육성, 고용 창출, 비석유 산업 기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함
 - 단기('25~'26년)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기반 확대·합작·기술 이전을 통해 조달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
 - Tawazun Council은 국방·안보 분야 투자 유치와 기술이전 위한 오프셋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적용 범위를 항공우주,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음
- UAE는 여전히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구매 방식은 단순 수입에서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을 중시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중
 - (수입) '20~'24년 기간에 UAE는 세계 11위권의 무기 수입국으로 집계, 직전 기간인 '15~'19년과 비교해 약 19% 감소. 이는 예멘전에서의 군사 개입 축소,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의 조달·인도 주기, 자국 방위산업 육성 노력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 구매 방식은 단순 완제품에서 기술이전·현지생산 조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며, 파트너도 전통적 우방에서 한국·튀르키예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
- (수출) UAE는 최근 방산 제품의 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중. '20~'24년 동안 UAE는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에 포함되며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MENA 지역 내에서는 전체 수출의 5.3% 차지
- NIMR 장갑차, ADSB 해군함정, ADASI 무인기 등 일부 분야가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EDGE는 '24년 기준 매출의 20% 이상을 수출로 달성, 중동·아프리카·남미 등 90여 개국에 진출. UAE는 '30년대 방산 순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 협작공장 설립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

□ 현지 주요 프로젝트 현황

• 주요 프로젝트

- '25년 레이더·미사일·UAV·전자전 등 핵심 부문의 대규모 조달을 통해 자립형 생태계 전환이 본격화됨. '26년에는 주요 프로젝트가 시험 가동 단계로 진입하고, 장거리 방공·호위함·수송기 등 전략 사업이 제도화될 전망

'25년 UAE 주요 방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핵심 내용	규모/주체
Ground Master 200 레이더 현지생산	지상감시 레이더 현지 생산라인 구축 (탈레스 합작)	금액 비공개/타와준-탈레스
“Go to UAE” 공급망 프로그램	현지 부품사 20개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	1억 6,000만 달러/타와준-탈레스
BMP-3 성능개량	UAE 보유 BMP-3 대수정 업그레이드 (기동·방호·FCS)	약 6억 달러/EDGE-FNSS
HEDÁ 지대지 미사일	국산 중거리 미사일 1단계 양산·도입	10억 2,000만 달러/Calidus
함대함 미사일 공동개발(MANSUP)	중·장거리 함대함 미사일 공동개발 (ER 파생 포함)	개발비 비공개/EDGE-SIATT
‘Jeniah’ UCAV 개발	제트 기반 충성의 무인전투기 개발	R&D/EDGE
HT-750 무인헬기 양산	중형 VTOL UAV 양산·납품 개시	발주 200대/DGE-Anavia
첨단 전자전(EW) 센터	GPS 재밍 대응·IED 재머 등 EW 역량 내재화	투자 비공개/EDGE
탄약·정밀무장 대량 조달	정밀탄·PGM 공급, 해군 유도탄 계약	12억 달러(탄약), 5억 4,000만 달러(해군)/ EDGE·Maestral

자료: 현지 언론

□ 시장 전망 및 기회 요인

- '25~'29년 동안 UAE 국방비는 연평균 6.8% 성장세를 기록하며, '29년 말에는 41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장기('25~'34년)으로 UAE의 GDP 대비 국방지출은 약 5.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첨단 무기에 수입을 확대하고 자국 방산 기업의 제조 및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국내 투자가 지속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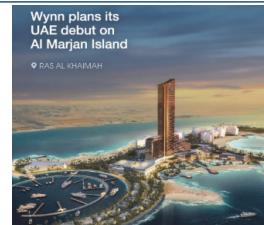
마. 관광

□ 비석유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 관광

- (비석유 부문 핵심 관광산업) '24년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는 2,573억 디르함(약 701억 달러)으로 전체 경제의 13% 비중을 차지. '23년 대비 3.2%, '19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로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 측면에서 역내 최고 성장률을 나타냄
 - '24년 해외 유입 관광객 지출액은 2,170억 디르함(약 590억 달러), 내수 관광객 지출은 570억 디르함(약 155억 달러)으로 집계, 약 80% 비중으로 국제 수요 중심이지만 내수 보완적 성장 병행 추세
 - 국적별 주요 방문객은 인도(14%), 영국(8%), 러시아(8%), 중국(5%), 사우디아라비아(5%) 순이며, 방문 목적은 레저 관광(84.7%), 비즈니스 관광(15.3%) 순
 - 관광산업의 호황은 △ 7개 토후국 전역 인프라 강화 △ 관광 투자 매력도 제고 △ 문화·체험 자원 홍보 △ 공항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정부의 전략적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공통 목표, 차별화된 실행) UAE 관광산업은 '연방 관광전략 2031(UAE Tourism Strategy 2031)* 아래 연방 목표와 토후국별 특화 정책이 상호 보완하며 성장 중
 - * '22년 발표, 관광산업 GDP 기여도 4,500억 디르함까지 확대 및 연간 호텔 투숙객 수 4,000만 명 목표
 - (아부다비) 루브르 아부다비, 구겐하임 아부다비, F1 그랑프리, UFC 경기 유치 등 아부다비 문화관광부(DCT) 주도 프리미엄 문화·예술·스포츠 중심 산업 육성
 - (두바이) 두바이 관광청(DET) 주도, 글로벌 허브·럭셔리·MICE 관광지 목표. 국제 환승객 기반 레저·비즈니스 관광 균형 강조, 글로벌 행사·쇼핑 페스티벌·관광 이벤트 강화 등
 - * Dubai Expo 2020(박람회), Dubai Shopping Festival(쇼핑), Art Dubai(미술), Dubai World Cup(경마), Dubai Food Festival(음식) 등
 - (拉斯 알 카이마) 산, 해변, 역사 강점 관광산업에 의존하던 북부 토후국에서 이슬람권 최초의 카지노 건설로 UAE 경제와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전환 도모

〈라스 알 카이마 원 알마르잔 아일랜드(Wynn Al Marjan Island)〉

- 미국 Wynn Resorts, 라스 알 카이마 알마르잔 인공섬에 GCC 최초 카지노 설립 중, '27년 개장 예정. UAE의 국교는 이슬람으로, 전통적으로 도박을 금지해왔으나 카지노 승인을 통해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함.
- '23년 9월 연방 상업 게임 규제국(GCGRA) 설립 → 카지노·도박 규제안 마련, 글로벌 게임 시장 진입 시도



자료: Wynn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대표 기업 주도, 산업 다변화) 대표 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과 신시장 개척을 모색 중
 - 두바이의 Emaar Hospitality Group과 Jumeirah Group은 럭셔리 호텔·리조트를 앞세운 브랜드로 열티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아부다비 Miral Group은 야스·사디야트 아일랜드 개발을 통해 테마파크와 문화 관광 확대
 - Dubai World Trade Centre(두바이), ADNEC Group(아부다비)은 전시·컨벤션 인프라로 MICE 산업을 견인, MICE와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가치 창출
 - 항공·여행 부문에서는 Emirates Airlines(두바이), Etihad Airways(아부다비), dnata(항공 서비스)가 관광객 유입을 주도

UAE 관광 분야 주요 기업 동향

로고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Jumeirah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 설립, 세계적 수준의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UAE 관광산업의 선도자 역할 • 24개의 럭셔리 호텔·리조트·레지던스(객실, 스위트, 아파트 포함 6,747실)를 운영 중
	Emaar Hospitality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의 대표 부동산 개발사 Emaar Properties 산하 레저·웰니스·식음료 운영 기업 • Address Hotels, Vida Hotels, Rove Hotels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며, 부르즈 할리파·두바이몰 등 Emaar Properties 개발 랜드마크와 연계한 시너지 강점
	Emirates Airl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년 설립된 두바이 기반 국영 항공사로 세계 최대 국제 여객 운항 네트워크를 보유 • 두바이국제공항(DXB)을 허브로 전 세계 150개 이상 도시를 연결하며 UAE 관광·물류 허브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축

자료: 각 기업 웹사이트

□ 시장 전망 및 기회 요인

- (글로벌 협력 필요성 증대) 대형 관광 프로젝트 및 이벤트 운영에 있어 해외 호텔 체인, 테마파크 운영사, IT·디지털 관광 솔루션 기업과의 파트너십 필수
 - UAE는 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전통적 일광욕·쇼핑관광을 넘어선 문화·레저·MICE·의료·친환경 관광 등으로 외연을 확장 중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한국은 IT, 콘텐츠, 서비스, 디자인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UAE의 관광 다변화 노력과 상호 보완적 시너지 창출 가능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

* '23년 10월 협상 타결, '24년 5월 정식 서명

- 10년 내 UAE 91.2%, 한국 92.8%(품목 수 기준) 교역 품목에 관세 철폐 예정
 - 과실류, 쇠고기, 닭고기, 면류, 생선류 등 식품군이 CEPA 주요 양허 품목에 해당, 또한 양국은 스마트팜 및 농업·식품 기술 혁신 등 긴밀한 협력 약속
 - CEPA 발효 및 관세 철폐 일정 등에 맞춰 사전에 현지 수출에 필요한 할랄 인증 등 인허가 취득, 현지 공급망 분석, 현지 파트너 발굴 등 진출 준비
- * 소고기 CEPA는 발효 10년 차 관세 철폐, 현지 수출을 위해 국내 할랄 도축 시설 및 인증 등 필요

양국 주요 양허 품목

분류	UAE	한국
즉시 철폐	의료기기, 선박용 부품, 인삼류, 직물, 과실류, 주요 자동차 부품(섀시 등), 주얼리, 벨브, 문구, 기타정밀화학제품, 무기류, 김, 멸치(건조) 등	대추야자, LNG/LPG, 알루미늄괴/스트랩, 기타식물성유지(카놀라유), 백시멘트, 신발 등
5년 철폐	화장품, 방사선기기, 항공기 엔진, 기계류, 압연기, 폴리에스테르 섬유, 김, 오징어 등	두류, 빵, 꿀, 대리석,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고무제품, 수산부산물(어류기름), 화장품 등
10년 철폐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화물차, 합성수지, 기타조명기기, 항공기·철도차량 부품, 원동기,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 휘발유, 제트유, 쇠고기, 닭고기, 면류(라면), 전복, 고등어(냉동) 등	원유, 병커C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연고, 알루미늄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기타플라스틱제품, 포트랜드시멘트, 버터, 밀가루, 양고기 등
관세 감축	나프타(5년간 5% → 2.5%)	나프타(5년간 0.5% → 0.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어 한국과 UAE 간 원전 및 에너지 관련 협력 논의('25년 4월)
 -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
 -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견인해 온 핵심축으로 기능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원전을 비롯하여 수소,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장할 예정
- *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ROK-UAE High-Level Consultation on Nuclear Cooperation)는 양국 원자력 협력을 위한 제반 사항 논의를 위해 '18년 11월에 발족했으며, 산하에 3개 실무그룹(① 원전 건설 및 해외 사업 공동 진출, ② 원자력 연구개발(R&D), ③ 원자력 안전 규제 및 핵안보) 운영 중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원전)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및 투자 기회 강화 MOU 서명
 - '24년 5월, UAE의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ENEC)과 한국전력공사(KEPCO)가 체결
 - UAE 바라카(Barakah)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는 한국 설계의 APR1400 원자로 4기가 포함됨. '24년 UAE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두 번째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지만 약 2년 지연 예정
- (우주항공) Mohammed Bin Rashid Space Centre(MBRSC)와 국내 위성 솔루션 개발 기업 세트렉아이가 파트너십으로 SAR 위성 'Etihad SAT' 개발
 - '25년 3월,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지상관제 스테이션에서 첫 신호 수신했으며, 위성 사양 설정, 설계, 기술 테스트 단계 등 UAE 현지 기술 역량 강화 및 자립성 확보에 성과를 보임
 - 기존 광학 위성들만으로는 어려웠던 악천후·야간 관측 등이 가능해졌으며, 농업·환경 감시·해상 및 유류 유출 탐지·재해 대응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처리 시스템을 통해 관측 및 데이터 활용이 강화될 전망
- (AI·디지털) '24년 5월 정상회담에서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공동 프로젝트 및 투자 기회를 모색 협의
 - 아부다비 정부는 '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한 AI 네이티브 정부(AI-Native Government)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13억 디르함(약 3억 5,000만 달러)을 투입해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
 - 정책 평가 AI 엔진, 공공 예측 시스템, 행정 절차 자동화 모듈 등을 UAE 정부에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공공 데이터 플랫폼 연계, AI 행정 시스템 공동 개발,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수출 등의 협력 모델을 제안 가능

〈KOTRA 두바이무역관–두바이 미래재단 MOU 체결〉

- '25년 9월, 한국 기술 기업의 중동 진출 확대와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
 - 향후 ▲ AI Week 공동 프로그램 확대 ▲ 공공 발주 연계 PoC(기술실증) 모델 구축 ▲ 국부펀드 연계 투자설명회 등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
 - '26년 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프로젝트에도 배터리·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인프라 등 관련 국내 기업의 참여도 적극 지원 예정



- (AI·교통) 두바이 교통청(RTA)은 'AI 전략 2030(AI Strategy 2030)'을 발표하며, 도시 내 교통·모빌리티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 AI 전략 2030에는 교통 신호 최적화·예측 유지보수·경로 추천·보행자 흐름 예측·자율주행 인프라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 혼잡 완화 및 통행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함
 - 한국과 UAE 정부 간 AI 기반 교통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공동 구축, 자율주행 시험구역 설계 및 관리 시스템 제공, 스마트 신호 제어 알고리즘 교환 및 표준화 협의 등 협력 가능

〈KOTRA 두바이무역관-두바이 경찰청 MOU 체결〉

- '24년 11월,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워크' 개최 및 MOU 체결
 - 양 기관 간 한국 기업 지원에 대한 협력과 R&D 프로젝트·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의 기술협력, 공동의 목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정기 협의
 - 두바이경찰본부 R&D 센터 내 기술상담 부스 운영 및 상담회에 국내 수출 테크 기업 20개사, UAE 포렌식·AI·항만·Traffic 경찰관 및 소속 엔지니어 약 500여 명 참여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알막툼 솔라파크 7단계 사업(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 Phase 7)
 - 7단계는 발전 용량이 1,600MW를 초과하고, 1,000MW 배터리 저장 시스템, 약 6,000메가와트시 (MWh) 용량의 배터리 시스템이 계획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
 -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 약 360억 CBM 감소, 연간 탄소 배출량 800만 톤 감소 등의 환경보호가 기대되며, 두바이의 청정에너지 비중이 목표보다 높은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에티하드 철도(Etihad Rail) 제2구간 확장 프로젝트
 - 에티하드 철도는 '30년 개시를 목표로 UAE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철도 개발 프로젝트로, 총 길이 1,200km, 총 사업비 400억 AED(약 110억 달러) 규모로 추진 중
 - 제2구간 프로젝트는 '25년 현재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알아인, 푸자이라 등 UAE 주요 산업 및 도시를 연결하는 605km 규모의 철도망 구축 예정

□ UAE 프로젝트 동향

- 비석유 부분 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인프라 조성,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신도시 건설,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 활발
 - '24년 UAE 발주 프로젝트 총액은 8,783억 달러, 건설(4,776억 달러, 54.4%), 석유·가스(1,172억 달러, 13.3%), 교통(1,011억 달러, 11.5%), 전력(715억 달러, 8.1%) 순
 - 對UAE 프로젝트 수주 동향
 - '25년 7월까지 對UAE 프로젝트 수주액은 2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5.8% 증가*, 對중동 프로젝트 수주액 대비 42.7% 비중
- * 두 건의(삼성물산, 삼성E&A) 대규모 산업설비 분야(21억 7,000만 달러 상당) 프로젝트 수주

한국의 對UAE 프로젝트 수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對UAE 수주액(증감률)	248(△91.3)	868(250.3)	375(△56.8)	2,401(495.8)
對중동 대비 對UAE 수주 비중	2.7%	7.6%	2.0%	42.7%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 우리 기업의 경우, 낮은 단가 경쟁보다는 EPC 기술적 역량과 납기 내 시공 능력을 요구하는 고부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참여
- * '24년 기준 공항, 산업단지 개발, 주거 등 주요 프로젝트 입찰 준비 및 평가 중

UAE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분야	현재 상황	규모
Shah Gas Plant Expansion Project	가스	입찰 평가	1,200
Bab Gas Cap Project	가스	기본설계	1,000
MBRM Solar Park : Phase 7(with BESS)	전력	본계약 사전심사	2,200
TaweeelahC, CCGT IPP 2500 MW	전력	본계약 입찰	3,000
Al-Nouf1, CCGTIPP 3300 MW	전력	본계약 사전심사	3,300
Etihad Rail - High Speed Rail	교통	본계약 입찰	7,600
Al Maktoum Airport(West Terminal Expansion)	교통	설계	3,500
Al Maktoum Airport(Concourse 2)	교통	설계	3,200
Fujairah SWRO IWP	물	시장 타당성 조사	400
Jebel Ali Strategic Sewerage Tunnel : Package J1	물	본계약 입찰	5,500
UAE-US Al Campus(5GW)	건설	시장 타당성 조사	4,000

자료: KOTRA 두바이무역관 자체 집계('25년)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G2G 협력 기회 : 에너지·원전·클린에너지 인프라 공동 사업
 - '24년 5월 정상회담에서 기존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UAE 원자력공사(NEEC)와 한전(KEPCO)이 주계약자로서 진행된 바라카(Barakah) 원전 1~4호기 후속 사업 및 핵연료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 논의됨
 - 바라카 원전 2차 프로젝트(5~8호기)를 준비 중이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진행될 다수의 태양광 프로젝트도 공고되어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의 입찰 등 진입 가능
- B2B 협력 기회 : EPC·기술 파트너십 및 설계·시공 사업
 - 국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이 UAE 현지 기업 또는 공기업과의 공동 입찰, 분담 사업,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 가능
 - '25년 7월, UAE 원자력공사(NEEC)는 현대건설과 협약을 체결하고 핵에너지 프로젝트 참여·지식 공유·전략적 투자 기회 평가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 틀을 마련하였으며, 삼성물산과 글로벌 원자력 발전 관련 개발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



2025년 주요 수주 사례

- 노타 AI, 두바이교통청 지능형 교통 관리체계 구축 프로젝트(RTA 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수주('25년 4월)
 - 함단 왕세자의 후원 아래 AI Week* 행사를 내 계약식 개최(4월) 후, '26년에 본 계약 체결 예정
* 두바이 왕실이 직접 주관한 중동 최대 공공 AI 행사
 - RTA가 발표한 'AI 전략 2030'의 주요 축인 '지능형 교통관리(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이니셔티브와 직접 연계되는 25만 디르함(6만 7,000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 한국 AI 스타트업이 UAE의 국가전략 수행 파트너로 공인받아, 향후 한국 AI 기술의 중동 진출 모델로서 다른 국내 스타트업들의 진입 가능성을 모색할 만한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음
- 삼성E&A, UAE 타지즈(TAZIZ)사와 17억 달러(62억 디르함) 규모의 UAE 최초 메탄올 공장 건설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
 - 본 메탄올 공장은 알 다프라(Al Dhafra) 지역에 위치한 알 루와이스(Al Ruwais Industrial City)에 건설되며, '28년 완공하여 연간 약 180만 톤의 메탄올을 생산할 예정
 - 타지즈사는 본 메탄올 공장이 청정에너지로 가동되며,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메탄올 공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 메탄올 공장 건설 프로젝트 EPC 계약을 시작으로 알 다프라 지역을 세계적 규모의 화학 생태계를 구축해 UAE 산업 발전과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화학제품 생산 리더로서의 UAE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
- 쌍용건설, 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두바이 이머시브 타워 프로젝트 공사를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로부터 수주('25년 1월)
 - 본 프로젝트는 DIFC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36층, 연면적 약 11만 5,000m²의 오피스 타워 1개 동을 건설하는 공사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58 |
| 2. 진출전략 | 60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대내) UAE 3대 대통령과 왕실 중심의 안정적 정치 환경
- (대외) 미국·유럽·중국·러시아·인도 등 다양한 국가와 균형 있는 경제·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 외교와 분쟁 지역의 글로벌 중재자 역할
- (협정) '25년 10월 기준 25개국과 CEPA 체결, 13개국과 발효
- (정책) UAE Vision 2031·Digital Economy Strategy 등 정책 방향 명확화
- (정책) 현지 고용 규정(에미라티제이션) 의무 적용 범위 확대
- (법제) '25년 법인세 최초 납부 시작, 국내최저한세 도입



경제(Economic)

- (경제) IMF '25년 4월 기준, '26년 UAE 경제성장을 5% 전망
- (환율) 美달러화 폐그 제도로 안정적인 환율(1 USD = 약 3.67 디르함)
- (금리) '25년 9월 기준금리 4.15%로 인하 ($\Delta 0.25\%$)
- (물가) '25년 UAE 물가상승률 2.1%, '26년 물가상승률 2.0% 추정
- (외투) '24년 외국인 투자 456억 달러(전 세계 10위) 중 그린필드 FDI가 전체의 47% 비중 차지(발표 건수 전 세계 2위)



사회문화(Social)

- (인구) 외국인 인구 88.5%로 다국적 소비 패턴 존재하며,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82.2%로 매우 높아 소비시장 확대
- (소비) 프리미엄과 웰니스에 우선순위를 두며 디지털 라이프와 경험에 기반한 소비문화
-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방예산 증대 등 국방 자립화 주력



기술(Technological)

- (AI/디지털) 'UAE 국가 AI 전략 2031' 등 정부 주도 AI 산업 육성,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및 행정 절차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정책
- (바이오) 생체인식 기술(Biometrics)로 Emirates ID 물리 카드 대체 계획을 발표
- (재생에너지)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 및 '에너지 전략 2050' 업데이트, 재생에너지 기술 R&D 투자 확대
-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 '26년 초 UAE에서 상업 운항 서비스 개시를 목표, 아부다비 에어택시 헬리포트 계획, '30년까지 두바이 자율 운행 교통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이 두바이 자율 운행 전략의 목표
- (철도/메트로) UAE 7개 토후국을 연결하는 에티하드 레일 프로젝트 '26년 서비스 시작 예정 '두바이 메트로 블루라인 프로젝트'를 발표, 2040년까지 매일 16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도록 설계
- (콘텐츠) '두바이 게임 2033 프로그램' 발표, 게임 산업 인재 유통 및 콘텐츠/테크/직업 창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와 CEPA 체결로 인한 관세 혜택 • 중동 플랜트, 건설, 조선 분야에서의 기술력 및 수주 경험 • 제조 강국으로서의 첨단산업 분야 기술력 • ICT, K-뷰티, 스마트헬스 등 프리미엄 산업군 제품 경쟁력 • 한류 기반 소비재 인지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현지 인증·AS 시스템 부족 • 중국·인도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 현지법인 혹은 파트너 부족 등 장기 현지화 전략 부족 • 아랍 문화·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아랍어 기반 커뮤니케이션 미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원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산업 다변화 정책 등 첨단산업에 집중되는 환경 • UAE 디지털경제 전략으로 AI·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확대 • 관광·문화 콘텐츠 산업 고성장 및 연계 소비 증가 • 중동·아프리카·서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가치상승 • 전 세계 2위 그린필드 FDI 프로젝트 유치 등 투자의 양적·질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의 중동 시장 진출 가속화로 가격 경쟁 심화 • 자국민 고용확대, 현지 제품·서비스 활용, 현지 투자 비중 제고 의무화 등 현지화 제도로 인한 제약 • 중동 지정학 리스크 상존 • 환율 변동성과 국제 유가 불안정 • 이슬람 종교·문화 차이로 인한 마케팅 제약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한-UAE CEPA 관세 혜택 활용
- 첨단산업분야 등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공략
- 기 수주 경험 활용 및 그린필드 FDI 타깃 진출

제조업 분야 공략
양허 분야 수출 집중
프로젝트·투자 공략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지역 안보 불안에 따른 방산 분야 협력 확대
- 첨단산업 기술력 활용, 현지생산 공급망 참여
-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 대응

방산 시장 공략
제조업 현지화 전략
제품 프리미엄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S·물류 연계 사업 강화
- 중소기업 대상 현지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 AI, 핀테크, 이커머스 등 디지털 중심 산업 공략

현지 파트너십 강화
현지화 역량 강화
디지털 산업 공략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프리미엄·고급화 전략으로 현지 소비 트렌드 겨냥
- 고용 규제 대응 위한 현지 인사 컨설팅 연계
- 환율, 유가, 안보 등 모니터링 및 위기 관리

비가격 경쟁력 확보
규제 및 위기 대응 강화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AI 산업

- 정부 주도 정책을 활용, 현지 정부 부처 협업 프로젝트 참여
 - 클라우드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구축 참여
 - AI 테스트베드 참여 및 PoC 중심으로 진입
 - 전시회 및 방한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및 네트워크 강화
 - 현지 정부 부처와 KOTRA의 MOU 및 지원 사업 활용

재생에너지

- 공공 프로젝트 입찰 공고 주시, 자금 조달구조 확보
 - 대형 프로젝트 입찰 공고 대응 및 국제 컨소시엄 참여
 - 프로젝트 구조 변화에 대비한 자금 조달구조 확보

제조업

- CEPA를 활용, 중간재·장비 분야를 역외가공·현지생산 방식으로 진출
 - 중소·경량 금속 및 금형·소부장 중심 현지화
 - 자유무역지대를 거점으로 한 생산-재수출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수출

방산

- 국방 자립화 주력 흐름 속 국방 협력 제안
 - 중소 방산 스타트업 대상 현지 국방기관과 공동 R&D 및 PoC 제안
 - 사이버보안 및 방산 ICT 융합 솔루션 수출
 - 전시/시연 중심 마케팅 및 방산 전시회 연계 대응
 - 국가 차원 훈련 및 인력 교류 프로그램 확대

소비 및 콘텐츠

- 경험·프리미엄·디지털에 집중, UAE 소비시장 공략
 - 한류 체험형 매장 입점 추진
 - 관광객 맞춤형 복합 상품 및 의료관광 연계 확대
 - 젊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 디지털 플랫폼 활용

전략 ① AI 산업



전략 수립 배경

- AI 대학교 설립, 스마트정부 확대, 클라우드센터 유치 등 정부 주도적 AI 산업 확대
 - 디지털 경제 전략(Digital Economy Strategy)을 통해 '30년까지 GDP의 13.6%를 AI가 기여하는 것이 목표'
- 한국 기업의 ICT 응용역량과 AI 알고리즘/서비스 개발력이 현지 디지털 인프라와 연계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됨

□ 현지 동향

- 전략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
 - '25년 본격 실행단계에 돌입한 UAE의 디지털 경제 전략(UAE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31)은 AI 산업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명시하며 정책 기반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체계적인 AI 생태계 조성 추진
 - UAE 규제정보국(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 설립 등 AI 규제, 공공 입법 과정에 AI 활용, AI 윤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법적·행정적 제도 강화
-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센터·컴퓨팅 파워 확대
 - (AI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26년부터 가동 예정인 아부다비의 Stargate UAE는 5GW 수준의 AI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계획이며, OpenAI, Nvidia, Oracle, G42, SoftBank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 중
 - (연구 교육 인프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AI 대학교(MBZUAI, Mohamed bin Zayed Univers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는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이었으나 최근 학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AI, 로보틱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인재 배출을 확대
- 미국과 AI 파트너십 협력 강화
 - (AI 캠퍼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 등을 계기로 'Stargate UAE' 프로젝트 발표, 미-UAE 양국은 5GW 규모의 AI 캠퍼스 건설 협력에 합의
 - (합작기업) 아부다비 AI 기업인 G42는 미국의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인 WWT(World Wide Technology)와 함께 AI 지원 기업인 Forge42를 출범

□ 유망 품목

- 디지털 행정, 정부 서비스 및 응용 분야 전반
 - 민원처리, 공공안내, 세금납부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챗봇 기반 자동응답시스템 적극 도입 중이며, 다국적 언어 사용자가 혼재한 현지 특성상 자연어처리 및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이 중요
 - 디지털 정부의 일환으로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공공·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안성 높은 AI 기반 ITSM, 시스템 모니터링, 자동화 운영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의 IT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정부 운영 시스템 내 로그 데이터 분석, 자동화 대응, 보안 예측 분야에서 한국의 AI 보안 기업 기술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디지털 건강 기록 및 의료 데이터 표준화 솔루션
 - UAE 보건부(MOHAP)는 Riayati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단위의 디지털 건강기록(EHR) 통합 체계를 구축 중
 - 의료 데이터 표준화, HL7/FHIR 기반 인터페이스 솔루션, 개인정보 비식별화 알고리즘 등을 통해 핵심 기술 제공자로 진출 가능
 - 의료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관련 법령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보안엔진을 보유한 한국의 헬스케어 IT 기업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임
-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 도로 혼잡 해소, 사고 예방, 긴급차량 대응 등을 위해 AI 기반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 중
 -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은 AI 트래픽 센서, CCTV 영상 분석, 스마트 교차로 기술 등을 활용한 'Dubai 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프로젝트를 '26년까지 확대 예정
 - 한국의 교통혼잡 예측 모델, AI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 긴급차량 자동 감지 알고리즘은 두바이가 설정한 핵심 도입기술 요건과 상당히 유사
-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AI 시스템
 - UAE는 중동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주행을 법제화했으며, 도심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 중. 두바이는 '25년부터 도심 내 자율주행 택시 운영 시범 사업을 확대할 예정
 - 인천 송도, 세종 스마트시티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솔루션을 모듈화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우리 기업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검사, 위험물체 감지, 비상 상황 대응 알고리즘 등의 필수적인 솔루션에서 신뢰성 높은 모델 보유

□ AI 산업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 진출전략

- 클라우드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구축 참여
 - UAE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 대용량 데이터센터 설립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AI 전략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가 중요한 요소
 - 데이터센터 사업자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의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으며, 미국 등 타 국가의 프로젝트 참여 시 협업 제안
 - AI 클라우드 결합 모델* 제공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병원, 학교, 보안, 스마트시티 데이터 등 UAE의 공공·민간 수요에 공급 가능
 - * AI 워크로드 친화적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 AI 테스트베드 참여 및 PoC(Proof of Concept) 중심으로 진입
 - 현지 정부 부처와 협업하는 AI 프로젝트가 활발하며, UAE 정부는 교통·보건·환경 등 공공부문 서비스에 AI 도입을 가속화 중
 - 우리 기업은 기술 검증(PoC) 또는 시범 프로젝트(Prototype)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후 상업적 수주로 이어가야 함
 - AI 도입이 필요한 부문을 선별하여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 후, 정부 AI 부처 또는 Digital UAE 부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증 사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출 경로 마련 가능
- 전시회 및 방한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및 네트워크 강화
 - 현지 정부기관과 기업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GITEX와 AI Everything 등 UAE 내 AI 특화 전시회에 참여해 현지 바이어 및 정부기관 대상 기술 시연 및 제품 전시
 - UAE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들과의 직접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 가능하며, 세미나 발표, 실시간 PoC 시연 등으로 현지 파트너 발굴 및 브랜드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여 향후 입찰 참여 시에도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 예상

〈2026년 주요 AI 행사〉

- GITEX(Gulf 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Global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정보통신 전시회
 - '26년 개최 예정일/장소 : '26. 12. 7.~11. / Dubai Exhibition Centre
 - 주요 품목 : AI, 사이버보안, 클라우드/데이터센터, IoT, 블록체인,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테크, 가상/증강 현실 등



- AI Everything 2025
 - UAE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서밋과 엑스포 행사로, GITEX와 연계되는 AI 중심 기술 이벤트
 - '26년 개최 예정일/장소 : '26. 5. 11.~13./ADNEC Centre, Abu Dhabi
 - 주요 품목 : 양자 컴퓨팅, 인프라 AI 시스템, AI 응용 솔루션, 생성형 AI 등



- Dubai AI Week
 - 정부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인공지능(AI)의 최신 기술, 정책,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 기술 행사
 - '26년 개최 예정일/장소 : '26. 4./두바이 미래박물관
 - 주요 품목 : AI 거버넌스, AI 인프라, 생성형 AI, AI 응용 솔루션(금융, 교육, 게임, 의료 등)



- KOTRA가 현지 정부 부처와 체결한 MOU 활용, 네트워킹 기회 확대
 - 두바이 경찰청('24년 10월)과 MOU 및 두바이 미래재단('25년 9월)과 MOU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업 지원 활용
 - 두바이무역관의 현지 네트워크 중 아부다비 첨단기술연구위원회(ATRC,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ouncil)와 연락 및 협업 시도 가능

전략 ② 재생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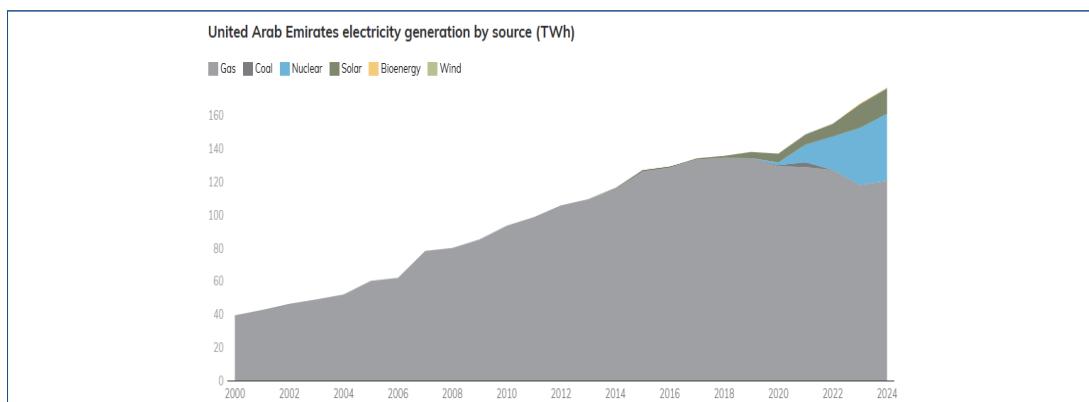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UAE의 전통적인 소득원은 원유였으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기여도 확대 목표 수립하여 글로벌·민간 기업과 협력 확대
 - 아부다비 미래 에너지기업(Masdar), 두바이 수전력청(DEWA), EDF Renewables, Siemens Energy, GE,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 우리 기업은 중동·아시아 대형 플랜트 수주 경험 다수, 기술·금융 패키지 수출 강점

□ 현지 동향

- 정책 도입과 이후 원유 비중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움직임
 - '23년 7월 '국가 에너지 전략업데이트안(Updated UAE Energy Strategy 2050)'을 발표
 -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여도 3배 확대 및 '50년까지 궁극적 넷제로 목표
 - '25년 1월, ENEC(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는 평화로운 원자력 프로그램 및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는 국가 및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자문 회사로서 자회사인 ENEC Consulting을 설립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아부다비에서 제15차 IRENA 총회 개최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미래 방향'을 주제로 논의
 -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 이후, '13년 35.6%였던 석유·가스 산업의 총 비중은 '24년 22.2%로 감소
 - (아부다비) 원자력,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마스다르(Masdar)사, 국제 싱크탱크 지역본부 개소 유치를 통한 넷제로 달성을 노력 추진
 - (두바이) '2050 탄소 배출 제로 전략 목표(Net Zero Carbon Emissions Strategy 2050)'를 발표, '50년까지 두바이의 전체 소비전력을 청정에너지로 대체

〈UAE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현황〉



자료: EMBER Electricity Data Explorer

-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추진

-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고, 한국 수출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상업 운전에 돌입하면서 원자력 소비 비중 확대
 - MASDAR는 ADSW(Abu Dhabi Sustainability Week)를 계기로, 태양광발전과 배터리 저장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연중무휴 기가스케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25년 1월)
 - 샤르자 국영석유회사(SNOC)와 아부다비 Emerge는 공동으로 샤르자 최초의 태양광발전소인 Sana를 준공
 - 두바이 수전력청(DEWA)은 사업 참여 관심 기업을 대상을 MBR Solar Park 7단계 사업* PQ 절차를 추진 중
- * 독립형 전력 생산자(IPP) 모델을 기반한 해당 프로젝트에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위해 47개 국제 기업이 참여 희망

□ 유망 품목

- 태양광 프로젝트

- 일평균 10~14시간의 풍부한 일조량으로 '글로벌 선 벨트' 지역에 위치하여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생산단가 경쟁력 보유
- 아부다비 내 1.2GW 규모의 누르(Noor) 태양광발전소가 상업 운전 중이며, 5GW 규모와 19GWh 배터리 저장력을 보유한 마스다르 솔라-배터리 프로젝트는 '27년경 완공 목표
- 두바이는 총 136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인 알막툼 솔라 파크를 통해 '30년까지 5GW로 확대하고 연간 65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
- 최근 아부다비에서 1.5GW 규모의 알 자라프 솔라 프로젝트 입찰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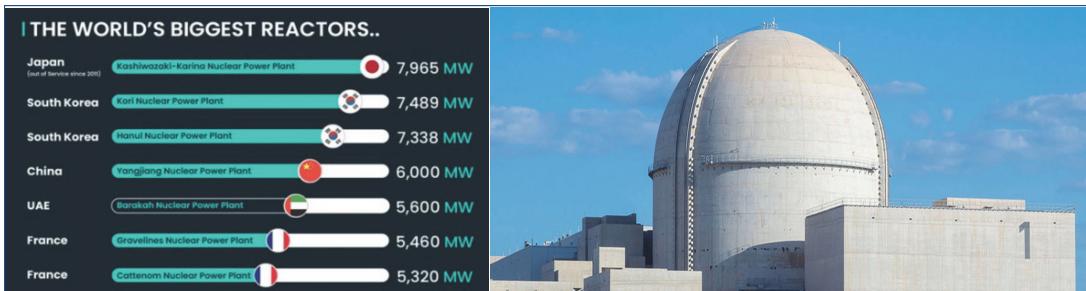
〈UAE 태양광 주요 프로젝트〉

			
누르 태양광발전소	마스다르 솔라-배터리 프로젝트	알막툼 솔라 파크	알 자라프 솔라 프로젝트

- 원전 프로젝트

- '25년 4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바라카 원전 2차 프로젝트(5~8호기) 기본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Design) 단계 도입, '27년 착공 및 '31년 완공 일정의 입찰 공고 대기 중
- 원자력 에너지는 '50년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아부다비의 바라카(Barakah)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국가 전력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음
- 기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2원전 부지 확보와 입찰 준비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한국의 1차 바라카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차기 입찰에서 기술적 우위와 신뢰도를 확보

〈바라카(Barakah) 원전〉



- 4기의 APR1400 원자로로 구성되어 총 5,600MW의 전력을 생산
- 한국전력공사(KEPCO)와의 협력으로 2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진행
- '12년 7월 착공, '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개시
- 연간 2,10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소 예상

자료: ENEC, Al Marwan Machinery

□ 기존 수주 경험 기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 진출전략

- 대형 프로젝트 입찰 공고 대응 및 국제 컨소시엄 참여
 - 한국의 최초 해외건설 원전인 바라카 1~4호기에 이은 2차 프로젝트(5~8호기) 입찰 공식 발표 모니터링 필요
 - 무함마드 빈 라시드 태양광발전소 등 두바이 수전력청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요건을 미리 준비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과 배터리 기술 및 전력 계약 경험을 가진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 UAE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에서는 품질·안정성·연결 및 안전 규제·PPA 조건 등이 중요하므로 기술적 현지 인증 및 규제 준수 기반 확보 필요
 - AI 기반 탐사·생산 최적화,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기술 협업 수요에 대응하여 현지 투자 및 합작 사업 제안

UAE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분류	규모	단계	발주	완공
Barakah One-Barakah Nuclear Power Plant : Reactor 5-8	원자력	20,000	FEED	2027년	2031년
AD Ports/TAQA-Green Ammonia Plant : Solar Power Plant 2000 MW	태양열	2,000	Study	2026년	2029년
DEWA-Al Maktoum Solar Park : Future Projects	태양열	1,750	Study	2026년	2030년
Brooge Energy-Green Ammonia Plant : Solar PV Plant 650 MW	태양열	700	Study	2026년	2029년
Dubai Airports-DXB and DWC Airport Rooftop Solar PV 39 MW	태양열	40	FEED	2026년	2028년

자료: Meed Projects('25년)

- 프로젝트 구조 변화에 대비한 자금 조달구조 확보

- 최근 UAE 정부는 대형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의 재정 리스크를 다변화하고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방식 외에 민관협력(PPP) 방식 도입
- 민관협력 방식은 교통·스마트시티·병원·학교·데이터센터 등 비에너지 부문에서도 확대 추세이며, 단순 시공자(EPC)로서의 역할 외에 ▲ 금융 조달 능력 ▲ 장기 운영 모델 제시 ▲ 국제 파이낸싱 네트워크 활용 역량이 기업의 입찰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평가
- 재정적 신뢰성 및 장기운영 가능성 평가에 유리하도록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과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입찰 단계부터 자금지원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독자적으로 자금을 부담하기보다 현지 투자자 또는 중동 펀드와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으로 자금 조달구조를 분산시키는 방식 또는 현지 은행과 국부펀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방식 고려 필요

〈Noor II Street Lighting Project〉

- 아부다비 Nojoom(EDF-ENGIE 합작사)와 아부다비 도로교통청, 아부다비 투자청이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도로 LED 가로등 사업
- 기존 고압 나트륨(HPS)과 메탈 할라이드(MH) 조명등을 에너지 효율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
- 조명 수명이 연장되고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큼



자료: EDF

전략 ③ 제조업



전략 수립 배경

- '25년 5월, 아부다비 전시컨벤션센터에서 UAE의 산업 혁신과 경제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산업 이벤트로서 제4회 Make It in the Emirates 전시회를 개최
- 비석유 경제 전환 흐름 속 정부 주도 제조업 강화 정책으로 제조업 GDP 기여도 확대
- CEPA 체결로 한국산 원자재·부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아 UAE 현지 가공으로 확대 가능
-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기술과 반도체 장비 및 항공·방산용 정밀부품 등 고난도 제조 역량이 경쟁국 대비 우위

□ 현지 동향

- 제조업 정책 및 자국 내 생산 제품 인증 제도
 - 국가 제조 전략 3,000억 디르함 산업 전략(Operation 300bn)으로 제조업의 산업 부문 기여도 상향 목표
 - In-Country Value(ICV)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UAE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Made in the Emirates Mark를 활용하는 등 UAE 내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
- 제조업 분야의 확장 및 토후국별 특화 제조업 집중
 - 전통적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등 자원 기반 제조업에서 점차 식품·제약·우주 항공 및 방산으로 제조업 분야 확장
 - 아부다비 중공업·첨단 제조, 두바이 경공업·다국적 제조 허브, 샤르자 및 라스 알 카이마 건축 기자재 등 토후국별 강점 산업군 형성

□ 유망 품목

- 모빌리티 : 자율주행택시, 무인버스, 에어택시
 - (자율주행택시, 무인버스) UAE는 자율주행 규제 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전체 교통수단의 25%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은 Cruise(미국 GM 자회사)와 협력해 '23년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 아부다비에서 무인버스 실증 노선 확대
 - (에어택시) UAE는 세계 최초 상용 에어택시 노선 운영을 목표로 이착륙장 구축, 항로 설정, 항공관제 연계 등 제도적 정비를 병행
 - 운행 관제, 안전 알고리즘, HMI, 자율주행 SW, 센서통합 솔루션, 원격관제 및 긴급 대응 시스템 등 우리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진출할 여지 존재

- 고효율 냉방시스템

- UAE는 연평균 기온이 30°C 이상으로 여름철에는 체감 50°C 이상까지 오를 만큼 매우 더위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는 주거·상업·산업시설 전반에서 필수적이며 도시 확장과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부다비, 두바이 지역에서는 냉방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요구되는 인버터 냉방 기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군, AI 기반 스마트 제어 솔루션 등을 보유한 국내 중견·중소기업은 경쟁국 대비 강점이 있음
- '24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UAE의 탄소중립 전략(Net Zero 2050)에 따라 냉난방기기의 에너지 효율 및 탄소 배출 저감 기술 필요

- 전력용 기자재

- '25년 8월 기준, 전력용 기기의 UAE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증가하여 수출 상위 10대 품목
-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발전소와 송배전 인프라를 지속 확장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전력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
- 스마트그리드 및 자동화 배전 시스템 등 디지털 전력망 구축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변압기·케이블·배전반·전력계측기기·보호계전기 등 정밀 제어형 전력기기류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강화 흐름 속 우리 기업 진출전략

- 중소·경량 금속 및 금형·소부장 중심 현지화

- UAE 제조업 다변화 정책 아래 금속가공, 알루미늄, 스틸, 금형 등 소부장 품목 수요 증가 조짐이 있음
- 경량 금속 및 부품 중심 제품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KEZAD와 같은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설립 또는 위탁생산 방식 진출을 검토
- 소부장 제품은 운송비 및 인증비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인증 확보 및 자유무역지대 내 물류센터 활용 등 물류 최적화 전략을 포함해야 함
- UAE 및 GCC 지역 수요를 예측하고 프로젝트 발주 계획을 조사하여 공급 파이프라인 구축 필요

- 자유무역지대(FreeZone)를 거점으로 한 생산-재수출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소유 허용, 관세 및 수입세 면제, 좋은 물류 인프라 등의 장점이 있는 자유무역지대에 생산공장 설립 후 CEPA 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GCC 및 인접국으로 재수출
- 연계 물류비, 역내부가가치기준(RVC) 충족 여부, 제품 품목별 조정관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유통 및 수출 체계를 설계 가능
- 자유무역지대 내 수요처(아부다비, 두바이 내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조달 기회를 확보 가능

- 스마트팩토리 수요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수출
 - 중동 시장에서 Industry 4.0 자동화 수요 증가 중이며, UAE 정부 산업 전략에 스마트제조·IoT·디지털 트윈 도입 강조됨
 - 자동화 설비뿐 아니라 설비 운영 데이터 분석, 예측 정비,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모델을 함께 제안 가능
- * 기존 생산라인에 IoT 센서 및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업체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한 사업모델을 통해 장기 수익 구조 확보

전략 ④ 방산



전략 수립 배경

-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가안보 위협 확대에 따라 방위력 확보 및 국방 자립화 주력
 - 방위비 지출 확대, 첨단 장비 수요 증가, 기술 분야 협력 등 전투 능력 강화
- UAE가 필요로 할 융합형 방산 역량 보유 및 다양한 수출 경험으로 높은 신뢰성
 - 사이버보안 등 ICT 기반 방산 기술력과 천궁-II 계약 실적 경험

□ 현지 동향

- 정부 핵심 정책으로 국방산업 육성
 -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UAE 정부는 전년 대비 국방예산을 증대했으며, 향후에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19년 국영 방산 기업인 EDGE 그룹 출범 등 방위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
- 수입 의존적 방식에서 현지화 및 공동개발로 전환
 -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위로 주요 무기 수입국이나 최근 10년간 수입 규모는 감소하고 단순 수입에서 방산 분야의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으로 전환
 - UAE 내 산업 기반으로 공동개발 파트너를 점차 다변화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유관 기업 보유

□ 유망 품목

- 통합 방공·대공 분야
 - UAE의 드론 및 탄도·순항미사일 대응 수요에 적합한 다종 방공 운용 경험과 유도무기 핵심 부품, RF/데이터링크, 레이더 신호처리, 교전통제(C2) 분야에 역량 보유
 - 유사 체계 도입 경험이 있어 향후 후속 군수지원·추가 공급으로 연결될 가능성 큼
- 정밀유도무기 및 탄약·신관·추진체 서브 시스템
 - UAE가 중시하는 기술이전·현지 공동생산 정책에 상호 보완적인 정밀유도무기 핵심 부품 기술과 탄약 표준화·대량생산 노하우 보유
 - 이러한 조건은 FACO* 구축과 제3국 공동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지에서 최종 조립·시험·품질검사까지 수행하는 모델

- 육상 모빌리티·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유지·보수·운영)·시뮬레이션
 - 사막·고온 환경에 최적화된 차량 플랫폼, 능동방어체계(APS, Active Protection System)·원격 무장체계(RWS, Remote Weapon System), 시뮬레이터와 MRO 운영 경험은 UAE의 고기동 차량·정비·훈련 수요에 적합
 - 단순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훈련·정비·현지화 패키지로 확장될 수 있어 장기적 협력과 합작투자로 이어질 잠재력이 큼

□ 국방 주력 흐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우리 기업 진출전략

- 우리 기업 국방·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수요 확대 기대
 - UAE의 국방 증진 및 방산 기반 국산화 움직임에 따라 단순 제품 수입보다는 현지생산·JV, 기술이전 및 장기적 협력 구조 요구 전망
 - 첨단기술 중심의 국방·안보 수요는 한국 기업의 수출 및 기술협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동개발·기술협력 모델 중심의 전략 설계가 필요
- 중소 방산 스타트업 대상 현지 국방기관과 공동 R&D 및 PoC 제안
 - 큰 무기체계 외에도 소형 UAV, 감시드론, 정찰장비, 비정형 방어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큼
 - 한국의 방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현지 시험, 인증 및 현지 조립/부품공급망 참여 기회 탐색
- 사이버보안 및 방산 ICT 융합 솔루션 수출
 - UAE 한국 간 국방 및 보안 협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감시·정찰 시스템, 암호화 통신 기술 등이 유망 분야
 - 방산용 보안 소프트웨어, CCTV와 AI 분석, 드론 감시 플랫폼, 네트워크 방어 제품 등 ICT 융합 방산 기술 중심 제품을 개발하여 현지 규격에 맞춰 테스트 제공 가능
 - UAE의 국영 방산 기업 또는 방산청과의 현지 합작투자 제안 또는 기술 공유 MOU 체결로 진출 경로 개척
 - * 인증, 국방 표준, 수출통제(ITAR, EAR 등) 요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 전시/시연 중심 마케팅 및 방산 전시회 연계 대응
 - IDEX, UMEX 등 UAE 내 주요 방산 전시회에 제품 전시 및 기술 시연 부스를 설치하여 현지 고객의 관심 확보
 - 전시회 참여 전, 영문·아랍어 제품 카탈로그 및 기술 자료, 필요 인증과 현지 조달 계획 등을 준비하고 시범 운용(PoC) 제안서를 제출하여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며, 전시회 후에는 후속 네트워크 관리 필요

〈UAE 주요 방산 전시회〉

-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IDEX)
 - 2년마다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 육·해·공 전 부문에 걸친 최신 방위 기술과 장비를 전시하고 정부 및 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 '25년에는 65개국 1,565개 출품사가 참여했으며, 이전보다 확대된 규모와 기술 혁신 중심 테마로 개최됨



자료: idexuae.ae, euro-s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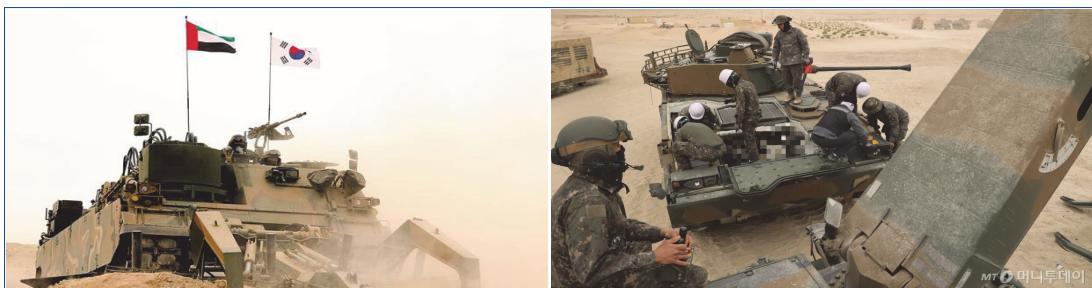
- Unmanned Systems Exhibition & Conference(UMEX)
 - 무인 시스템(UAV, 로보틱스 등)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컨퍼런스
 - 방산 외 민간·산업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한 자율 시스템 기술을 보여주는 행사
 - '26년 행사 일정 : 1월 20~22일 아부다비 ADNEC 개최 예정



자료: umexabudhabi.ae

- 훈련 및 인력 교류 프로그램 확대
 - UAE는 고등 군사 훈련, 파일럿, 정비 및 보안 인력 양성 수요 증가 중이며, 한국과 UAE는 국방 과학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예정
 - 군 관련 훈련 및 정비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동 훈련센터 설립 등의 제안을 준비해야 하며, 방산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교육 패키지를 구성하여 기술적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필요

〈韓·UAE, 현지서 사막 기동 연합 훈련〉



- '25년 2월 10~20일 UAE 알하드라 훈련장에서 진행
- 육군 제8기동사단 장병을 주축으로 K2전차 ·K9A1자주포 등 육군 기계화 부대 주요 무기 14대 투입

자료: 연합뉴스

전략 ⑤ 소비 및 콘텐츠



전략 수립 배경

- 정부의 대형 문화 행사 및 스포츠 행사 등으로 글로벌 인재와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고소득 소비층이 확대됨
- 프리미엄 제품·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으며, 경험을 중시하고 이커머스 및 SNS 활용 높음
- 한류 브랜드·IT·콘텐츠 경쟁력·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를 바탕으로 뷰티, 문화 콘텐츠, 스마트 관광, 헬스케어 등 다방면 진출 가능

□ 현지 동향

- 안정적이고 다양성을 보유한 UAE 인구
 - UAE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에미라티 국민과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높은 구매력 보유
 - *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 약 7만 8,000달러로 세계 16위
 -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 약 88.5%, 약 200개국 출신 이민자가 거주하는 다국적 사회이며,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두바이 경제관광청 '25년 8월 발표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988만 명의 국제 방문객 맞이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6% 증가를 기록
- 정부의 문화·관광 신산업 허브 전략
 - UAE 정부는 대형 문화 행사 및 스포츠 행사, 메가 프로젝트 등 추진중이며, 중동 Big 3(UAE,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간 역내 허브 경합

〈UAE 대형 문화 행사〉

Abu Dhabi Art	Dubai Food Festival	F1 Abu Dhabi Grand Prix	Dubai World Cup

자료: abudhabiart

자료: Platinumlist

자료: Timeoutabudhabi

자료: Dubai Eye

- 전통 관광산업에서 디지털 콘텐츠·체험 산업으로 확장 추세
* (두바이) 게임 2033 프로그램, (아부다비) e스포츠 아일랜드 등 e스포츠 육성 전략

〈Dubai Program for Gaming 2033〉

- 두바이 미래재단(Dubai Future Foundation, DFF)이 주관하는 전략적 이니셔티브
- '33년까지 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약 10억 달러 규모의 GDP 기여를 달성하는 등 두바이를 글로벌 게임 산업의 상위 10대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 콘텐츠 수출, 글로벌 게임 시장 참여, 게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진출 유망함



자료: U.ae

〈Abu Dhabi eSports Island〉

- True Gamers 사가 계획 중인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가 약 2억 8,000만 달러 이상이며, 단순 시설 설립을 넘어 e스포츠 인프라 전체를 갖추는 것이 목표
- 완성 시 게임 대회, 프로 트레이닝 시설, 콘텐츠 제작 공간, 고급 호텔 시설 등이 포함되는 복합 e스포츠 허브가 될 예정
- 경제 다변화 전략과 문화 산업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 가능



자료: Timeoutabudhabi

□ 유망 품목

- 젊은 층과 고소득층 겨냥 프리미엄 K-소비재
 - UAE는 프랑스·미국 뷰티 브랜드 중심 시장이었으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뷰티에 대한 선호가 급증했으며, SNS·뷰티 유튜버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의 사용법과 효과가 소개되면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음
 - 한류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이나 즉석식품은 꾸준히 수요가 있으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샤인머스캣, 딸기 등 프리미엄 한국 과일과 무알코올·저당 등 건강음료, 친환경·현지화 포장의 고급 스낵 및 디저트 등 유망

〈UAE 내 K-소비재〉

한국 딸기	한국 샤인머스캣	조선미녀 화장품	더페이스샵 화장품

자료: Lulu hyper market

자료: 1004gourmet

자료: Life Pharmacy

자료: thefaceshopuae

•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의 급성장

-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고급 미용의료 수요가 매우 높으며, 특히 한방·피부·성형 치료를 포함한 프리미엄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관광청과 연계한 K-메디컬 홍보, 통합 진료-미용 복합 클리닉 운영 등의 방식으로 진출 가능
-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등 종합병원은 이미 아부다비·두바이 내 병원 운영 컨설팅, 병원 정보 시스템(HIS) 수출 등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도 스마트 재활, 진단 AI, 건강관리 앱 등을 내세워 현지 투자자 매칭 추진 가능

• 한국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 진출 기회

- UAE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꾸준히 증가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언어·문화·종교 맞춤형 관광 콘텐츠, 관광 루트 설계 플랫폼, AR·VR 기반의 스마트 관광 체험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AR 관광 지도, AI 여행 추천, 무슬림 친화 정보 연계 플랫폼 등 다양한 관광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UAE 관광청·지자체와 협력해 관광 앱 공동 개발, 맞춤형 관광 콘텐츠 현지화 등의 형태로 진출
- 대형 쇼핑몰 등 관광·문화 복합 공간에서 K-pop 공연, 한식 체험, VR 콘텐츠 등 K-관광 콘텐츠를 융합한 B2C 전시·체험 형태로 진출 검토

□ 경험과 프리미엄, 디지털에 집중하는 우리 기업 진출전략

• 한류 체험형 매장 입점 추진

- 한국 제품(뷰티, 패션, 음식, 콘텐츠) 브랜드가 UAE 내 K-컬처 이벤트, 페스티벌, 문화 행사 등에 참여 및 협업 확대
- 팝업스토어, 체험관, 한류 페스티벌 협업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제품 직접 체험 기회 제공
* Korea 360 이벤트, KOCCA Launchpad UAE 등

〈KOREA 360〉



자료: 두바이무역관

- 관광객 맞춤형 복합 상품 및 의료관광 연계 확대
 - UAE는 고급 관광객 대상 서비스에 수요가 높으며, 웰니스 및 미용 서비스, 의료서비스가 관광과 결합되는 패키지 수요 증가
 - 병원, 미용업체, 여행업체의 메디컬 뷰티 패키지(시술+뷰티제품+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현지 호텔 및 관광 업체와 협업하여 홍보 채널 확보
- 젊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 디지털 플랫폼 활용
 - 전문 인플루언서 및 SNS 전문 마케팅 기업이 성장 추세로, 이를 활용한 인지도 확보 및 프로모션 활용
 - * UAE의 소셜미디어 광고 허가제에 따라 광고성 콘텐츠는 허가증 취득 필요

〈인플루언서 혹은 SNS 활용 마케팅 예시〉

- 두바이 초콜릿으로 알려진 픽스 초콜릿(Fix Chocolate)은 피스타치오·타히니 크림과 카다이프 조각을 넣어 차별화된 풍미 제공
- TikTok, Instagram Reels 등에서 언박싱과 시식 영상이 공유(단면을 자르는 장면, 바삭한 소리, 크림이 흘러내리는 모습) 소비자에게 강한 시각·청각적 자극을 줌
- 특히 마리아 베헤라(Maria Vehera)의 리뷰 영상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며 수량 제한 판매 정책이 구매 경쟁으로 연결,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이어짐



자료: Fix Chocolate



전기자동차

- 선정사유**
- UAE는 Net Zero by 2050 등 에너지전환·친환경산업 육성 정책 추진 중
 - 최근 3년간 전기차 수요 연평균 +25% 이상 증가
 - CEPA 발효 시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 강화
- 경쟁동향**
- 한국·일본·미국·유럽 브랜드와 중국EV 간 다자경쟁
 - 중국EV는 저가·현지파트너십 전략으로 점유율 급등
 - 충전소 확대('30년 1만 기 목표) 추진
- 진출방안**
- CEPA 활용으로 초기 가격 우위 확보
 - 현지 주요 딜러사 협력 통한 유통망 강화
 - 정부 프로젝트 참여·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적응력 제고

전력기자재(HVDC케이블·변압기 등)

- 선정사유**
- 바라카/태양광 HVDC 송전망(272km) 등 초고압전력망 프로젝트 추진
 - 국내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 완료하며 기술 신뢰성 입증
 - 대규모 인프라 확대로 케이블·변압기·전력변환장치 수요 증가
- 경쟁동향**
- 일본·유럽 기업이 전력 인프라 시장 선도
 - 한전·삼성물산 컨소시엄의 HVDC 성공 사례로 기술 입지 강화
 - 중국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적극 진입 시도
- 진출방안**
- HVDC·스마트그리드 기술력 홍보, UAE 전력공사와 협력 구축
 - 컨소시엄 입찰 참여로 대형 프로젝트 공략
 - 현지법인 설립·수출신용기관 금융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방산·보안 물품(무기류 및 보안제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IDEX/NAVDEX에서 방산 분야 약 68억 달러 계약 체결 기록• 타와준(Tawazun)'25~'28년 전략 등 국가 차원의 산업화 드라이브• '25년 UAE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8억 2,000만 달러('25~'30년 CAGR 11.2%)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EDGE 매출 50억 달러, 수출 20%, 현지 제작·기술이전 선호 강함• '20~'24년 중동이 전 세계 무기 수입 27% 차지 → 역내 조달 시장 견조• 타와준 'Go to UAE' 프로젝트 및 합작 사례 확산(레이더·해양·전자 등)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소프트웨어·테스트베드 현지화 패키지 제안• 관련 전시회 사전 PoC-현지 인증-공동 부스 전략 운용• 사이버보안+물리보안 통합 패키지로 스마트폴리스·공항·항만 타깃팅 |

의료기기·장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 의료 허브를 목표로 병원 첨단화 및 AI·정밀의료 확대 추진 중• 의료기기 시장은 '28년 약 14억 7,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한국 의료진·병원의 신뢰도와 스마트병원 모델 수요가 높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의료기기 대기업과 OEM(필립스 등)이 시장 주도• 한국은 첨단이미징·AI 진단장비·스마트 의료기기 분야에서 점유율 확대• 의료 솔루션·헬스케어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주요 병원 네트워크와 협력해 시범 도입 추진• WHX Dubai 전시회 참가로 현지 디스트리뷰터 확보• UAE 보건당국과 협력해 K-스마트병원 모델 수출 계약 추진 |

가전제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득층 주거환경도시개발·도시 프로젝트 확대로 생활가전 수요 지속• 한-UAE CEPA 발효 시 에어컨·냉장고 관세 철폐, 가격 경쟁력 상승• 한국 가전은 품질·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현지 신뢰도 확보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미국 대형 브랜드와 중국 가전의 경쟁 심화• 현지 건설사·개발사가 프로젝트별 선호 브랜드를 중심으로 구매 결정• 신도시 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 시장 선도권 확보 경쟁 가속 |

-
- 진출방안**
- 관련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 현지 대형 유통망(Sharaf DG 등)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 에너지효율·IoT 기능을 강조하고 현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전기·전자부품(케이블·PCB 등)

-
- 선정사유**
- 인프라 건설 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
 - CEPA 발효 시 주요 전자제품 관세 철폐, 가격 경쟁력 확보
 - UAE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전기전자 부품 수요를 뒷받침
- 경쟁동향**
- 중국 업체는 가격 경쟁력, 유럽 업체는 기술력·브랜드 파워 중심
 - 한국 부품사는 신뢰성 높은 품질로 의료·방산·IT 시스템 부품에서 강점
- 진출방안**
- 주요 건설사·전력회사 프로젝트 입찰 참여로 시장진입
 - 현지 전기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 방산·인프라 프로젝트 서브 계약 및 관급 조달 등록을 통한 확산

기초 화장품

-
- 선정사유**
-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
 -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급증세, CEPA 발효 시 가격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연계 소비자 선호도 확산으로 'K-코즈메틱' 브랜드 가치 상승
- 경쟁동향**
- 미국·프랑스 명품 브랜드(L'Oréal, Estee Lauder 등)가 고급 시장 선도
 - 일본·한국 중견 브랜드가 중가 시장 분할 경쟁
 - UAE 로컬 화장품사와의 협업·OEM 생산이 활발히 진행
- 진출방안**
- 뷰티 박람회 참가로 수입업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 SNS·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현지 인지도 제고
 - 현지법인·합작 설립으로 유통망 확보, CEPA 혜택 기반 가격 전략 홍보

식음료

선정사유

- 이주민 비율 높아 다양한 식품 소비 구조가 형성, K-푸드 수요 급증
- '24년 한국의 對UAE 라면 수출액 1,740만 달러, 전체 수입의 40% 차지
- 한류 콘텐츠 확산과 맞물려 K-FMCG 인기도 상승세

경쟁동향

- 인도네시아 Indomie, 중국 Maggi 등 아시아 간편식 브랜드가 강세
- 미국·유럽 식품기업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
- 한국산 농수산물·간편식은 할랄 인증·마케팅 강화로 입지 확대

진출방안

- UAE 대형 유통망(Carrefour, Lulu 등) 확보
- 현지 한식당·프랜차이즈 운영으로 K-푸드 홍보 강화
- K-푸드 엑스포·할랄 인증 획득, 두바이 물류단지 활용한 재수출

스마트팜 기자재

선정사유

- UAE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
- '51년까지 식량 자급 세계 1위 목표 아래 대규모 수경재배 단지 및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구축 예정
- 한국의 스마트팜 솔루션 기술력이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음

경쟁동향

- 네덜란드·미국 기업이 전통적으로 수경재배 시장 주도
- 한국 스마트팜은 가격 대비 성능 우수성으로 경쟁력 부각
- 현지 시장은 합리적 가격대 대체재 선호 경향 뚜렷

진출방안

- UAE 정부·플랜트 사업자와 협력해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 두바이 스마트팜 파트너십 행사 참가를 통한 농업부·바이어 네트워킹
- 기술이전·합작개발을 통한 현지화 전략 강화

반도체

선정사유

- AI·데이터센터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AI 시장 40억 달러 목표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와 함께 AI 칩·반도체 수요 급증 전망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한국 ICT 기술 도입 기회 확대

경쟁동향

- 인텔·엔비디아·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시장 주도
- IBM·Dell 등 서버업체가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 공급
- UAE는 자국 반도체 생산 기반 부재, 해외 공급 의존 심화

-
- 진출방안**
- 국내 대기업 중심의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및 클라우드 솔루션 제안
 - UAE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 G42 등 현지 IT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AI 센터 구축 사업 연계

배터리(EV·ESS용)

-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보급·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이차전지 수요 급증 • UAE는 청정에너지 전략에 따라 ESS·EV 배터리 솔루션 필요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한국·일본 기업 강세, UAE 정부는 충전 인프라·재활용 체계 확충하며 현지생산·공급망 유치에 적극적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생산기술로 경쟁 우위 확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배터리 기업의 EPC사 협력 ESS 프로젝트 참여 • EV 확산 정책 활용, 충전소·ESS 투자 공급 기회 확대 • 배터리 리사이클 등 연구 협력 MOU를 통한 진입 기반 마련 |
-

건설중장비

-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상반기 UAE 내 발주 건설계약 총액 약 444억 달러 기록 • 도로·철도·초고층·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으로 자재 수요 견조 • 대규모 인프라 수요로 한국 건설장비·기자재 진출 기회 확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유럽 건설장비 강세 • 중동 기업들은 오일 재투자 기반 대형 프로젝트 참여 • 한국은 중소형 굴삭기·특수 차량에서 신뢰성 확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연계를 통한 장비 구매·자재 공급 참여 • UAE 건설전시회 참가, UAE 민간 건설사 ALEC Engineering & Contracting, 두바이 건설사 Dutco 등 현지 건설사 협력 • CEPA 건설 서비스 양허 논의를 활용한 제도적 진출 기반 마련 |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디지털헬스케어

- 선정사유**
- UAE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30년까지 연 12% 성장 전망
 - 원격진료 비중 '28년 25% 도달 예상
 - 한국의 AI 진단·스마트병원 모델은 GCC서 높은 신뢰 확보

- 경쟁동향**
- 미국·EU 기업이 시장점유율 60% 이상
 - 중국·인도, 저가 솔루션으로 연 15% 점유율 확대
 - 현지 M42·G42가 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 강화

- 진출방안**
- 한국 의료기관·앱 개발사 협력, '25~'30년 원격진료 2배 성장 대응
 - K-스마트병원 MOU 활용해 병원 IT 사업 참여
 - 의료관광 시장('24년 40만 명 → '28년 70만 명) 겨냥 패키지 제공

관광·레저서비스

- 선정사유**
- 두바이 '25년 상반기 방문자 수 988만 명 기록
 - 두바이·아부다비 중심의 테마파크·쇼핑·문화·미식 산업 호황
 - 중동·남아시아 허브 역할로 관광객 증가세 지속

- 경쟁동향**
- 글로벌 OTA·여행사(Booking.com 등)가 시장 주도
 - 한국의 한류투어·의료관광 콘텐츠는 차별화 요소
 - 현지 여행사 기준 파트너십 강세, 진입장벽 존재

- 진출방안**
- 여행사·호텔, 한류·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 UAE 관광청과 협력하여 K-팝 공연·전통문화 체험관 유치 추진
 - MICE 교류 프로그램으로 기업·기관 네트워크 강화

문화 콘텐츠·엔터테인먼트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 영화·음악·게임 등 문화 콘텐츠 수요 급증, K-드라마·K-팝 인기 K-콘텐츠 수출액 최근 5년간 연평균 13% 성장 정부주도 문화·크리에이티브 산업 육성정책 추진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리우드·인도 밸리우드가 전통 강세 글로벌 OTT(넷플릭스·Disney+)와 현지 방송사가 시장 주도권 경쟁 한국 제작사는 직접 투자·합작 프로젝트로 진출 가속화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부다비 문화원 등 활용해 현지 배급 채널 확보 국제영화제 등 행사에서 제작사 협업 기회 K-Pop 월드투어·가상공연·현지화 콘텐츠 제작 |

교육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UAE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 약 4.27억 달러 '25~'33년 동안 연평균 성장을 약 24.6%로 전망 AI 도입으로 스마트 교육 시스템 고도화 추진 한국어·문화 교육 수요 증가, 한국 온라인 교육 플랫폼·직업훈련 인기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영국 명문대 중심의 해외 유학 수요 여전히 강세 글로벌 온라인 교육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 두바이 어학원·사립학교 중심의 영어 교육 시장 성숙 단계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민사회·현지 학교 제휴 공동 프로그램 운영 SW 코딩·AI 교육 콘텐츠를 UAE 교과과정 및 MBZUAI와 연계 추진 유학박람회 참가로 한국 대학·교육 브랜드 홍보 |

금융·핀테크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금융 허브, 핀테크 도입 장려, 디지털 결제 비중 지속 증가세• 금융·보건 분야 챗봇·스마트뱅킹·전자지갑 솔루션 수요 확대• 한국 블록체인·AI 금융솔루션 및 스타트업 기술이 경쟁력 확보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금융그룹과 HSBC·Citi 글로벌 은행이 주도• G42 Pay·암호화폐기업 등 IT 기반 금융사 진출• 이슬람 금융 샤리아 충족이 시장진입 핵심 요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금융 당국·은행과 MOU 체결 및 솔루션 공급• 디지털 헬스케어 결제·외국인 송금·환전 플랫폼 현지에 맞춰 개발• 스타트업 중심의 샌드박스 참여로 시장 확대 |

소프트웨어·AI 솔루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정부·스마트시티 전략에 따라 AI·빅데이터·클라우드 수요 확대• G42 등 현지 기업과 협업 기회 증가, 스마트 도시·모빌리티 분야 유망• 한국 ICT·AI 기술은 정부 지원·신뢰도를 기반으로 진출 경쟁력 보유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 선점• UAE ICT 서비스의 해외 의존도 70% 이상으로 해외 협력 필수• 한국은 IoT·스마트공장·지능형 교통 등 세부 분야 경쟁력 뚜렷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IT 기업, 전자정부·교통관리·에너지 최적화 프로젝트 참여• AI 대학 공동연구·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 연계로 현지화 추진• CEPA 서비스 개방 혜택 활용, 현지 법인 설립 및 컨설팅 서비스 강화 |

물류·유통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 재수출 허브로 두바이 물동량 세계 10위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24년 시장 규모 약 1,250억 달러, '25~'33년 연평균 성장을 약 21.4% 전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HL·FedEx·Aramex 등 글로벌 물류 기업 강세 두바이 사우스 등 자유무역지구 유통사가 물류 거점 장악 아시아 유통 채널 확대, 한국과 직접 경쟁 심화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바이·아부다비 자유무역지구 거점 설립 현지 유통업체와 파트너십 체결하여 유통망 확보 스마트물류·전자상거래 플랫폼 협력을 통한 진입 |

건설·인프라 서비스(EPC)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는 공항·항만·도로·지하철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연이어 추진 정부·민간의 스마트시티·스마트 인프라 투자 지속 확대 전망 한국 기업 설계·기술 소프트파워와 메가프로젝트 수주 경험, 경쟁 우위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일본·튀르키예 건설사, 저가 입찰 전략으로 참여 유럽 EPC사,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험 강점 한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 메가프로젝트 경험으로 신뢰도 확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C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입찰 PF 지원·해외건설보험 활용으로 금융 경쟁력 강화 인프라 협력 MOU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제안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아랍에미리트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의료·바이오	UAE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P3)(AEEDC Dubai 2026)	1월/두바이
방산·G2G	MRO Middle East 방산홍보관	2월/아부다비
소비재	두바이 피부미용 박람회(Dubai Derma)	3월/두바이
AI	두바이 AI Week	4월/두바이
AI	World Police Summit	5월/두바이
소비재	2026 경기도·중동 K-Lifestyle in Middle East	5월/두바이
에너지	경남 원전·전력기자재 사절단	5월/UAE
의료·바이오	중동 K-바이오 사절단	2분기/두바이
에너지	WETEX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절단	9월/두바이
기계	두바이 Big 5 전시회(P2)	11월/두바이
자동차	Automechanika 전시회(P3)	12월/두바이
ICT	UAE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P2)(GITEX Global 2026)	12월/두바이
프로젝트	중동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연중/UAE
물류	UAE K-물류데스크	연중/UAE
소비재	UAE 한류 거점사업	연중/UAE
의료·바이오	UAE K-바이오데스크	연중/UAE
서비스	UAE 서비스 거점사업	연중/UAE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라마단	2월 18일~3월 20일	
한-UAE 수교 46주년	6월 18일	
UAE 건국일 55주년	12월 2일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1월 11~17일	아부다비
2026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 (World Future Energy Summit 2026)	1월 13~15일	아부다비
2026 세계 정부 정상회의 (World Government Summit 2026)	2월 3~5일	두바이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두바이 보안장비 전시회(Intersec)	1월 12~14일	
두바이 치과 기자재 박람회(AEEDC)	1월 19~21일	
두바이 걸프 식품 전시회(Gulfood)	1월 26~30일	
두바이 의료 전시회(WHX Dubai)(구 아랍헬스)	2월 9~12일	
두바이 더마·미용 박람회(Dubai Derma)	3월 31일~4월 2일	
두바이 보트 전시회(Dubai Boat Show)	4월 8~12일	
두바이 투자 전시회(AIM)	4월 13~15일	
아부다비 AI 전시회(AI Everything Global)	5월 11~13일	
두바이 인덱스 디자인 전시회(INDEX)	6월 2~4일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두바이 수·환경 에너지 전시회(WETEX)	10월 중	
두바이 농업 전시회(Agra Middle East)	10월 중	
두바이 미용 박람회(Beautyworld Middle East)	10월 중	
아부다비 석유·가스 박람회(ADIPEC)	11월 3~6일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Big 5)	11월 중	
두바이 정보통신전(GITEX Global)	12월 8~11일	
두바이 스타트업 전시회(Expand North Star)	12월 중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Dubai)	12월 중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IDEX)	-	격년 개최로 '27년 예정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인혜린	과장	두바이무역관	+971-4-450-4360	in416@kotra.or.kr
2	박미진	과장	두바이무역관	+971-4-450-4360	mijin@kotra.or.kr
3	박혜수	대리	두바이무역관	+971-4-450-4360	hyesu@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아랍에미리트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54-6 (95320)